

제3장

통계청 주요 지표체계 간 조정 및 서비스 방안 연구

김인겸 · 박영실 · 이영미

요 약

□ 연구배경

- 다양한 부서에서 지표체계를 개별적으로 작성·서비스함에 따라 지표체계 간 유사·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지표체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표생산·서비스 제공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연구내용

- 해외사례 검토
 - 웰빙 혹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지표 서비스 중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SDGs 반영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발전 경로 채택
 - 지표 작성은 정책부처의 수요에 따라 진행되며,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 지표체계 조정방안
 - 지표체계는 정책적 접근과 개념적 접근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되, 조정은 개념적 접근에 속하는 지표체계를 대상
 -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조정하되, 전자에는 삶의 질지표와 사회지표와의 통합문제가 후자는 국가주요지표의 내용 및 명칭 변경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

□ 결론

- 향후 청내 지표체계조정위원회 등을 구축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표 작성 방법 및 표준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중장기적 계획 필요

주요 용어 : SDGs, SDI, SD, 웰빙

제1절 서론

통계청은 개인 삶의 질 및 국가의 발전상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 체계들을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이하 사회지표), e-나라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이하 삶의질지표), 국가주요지표, 녹색성장지표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각 지표체계는 구축 및 개편 과정에서 개념 수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79년 처음으로 작성된 한국의 사회지표는 그동안 세 차례의 개편(1995·2004·2012년)을 거치면서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포괄하게 되었는데 이는 비교적 최근(2014년)에 구축된 삶의질지표나 국가주요지표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와 같다.

개념 수렴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구적 차원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슈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ion, GDP)을 넘어서는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성 이슈가 제기되면서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표 체계를 구축 및 개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표체계 간 유사 및 중복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업무 중복과 이로 인한 예산활용의 비효율성, 이용자 혼란이라는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지표체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지표 생산과 서비스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대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6년 12월에는 ‘다양한 국가지표 간 체계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국가주요지표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한국의 주요 지표체계 비교연구’(박영실·김석호·김인겸, 2017)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거나 서비스 중인 지표체계를 대상으로 작성목적, 영역 그리고 개별 지표 수준에서의 연계(m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수행하여 지표체계 조정 및 서비스 방안, 통계청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현재의 다양한 지표체계가 공존하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비슷한 환경에 직면해 있는 해외사례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통계청 내 관계자 협의와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한국 맥락에 부합하는 지표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해볼 것이다.

제2절 현황 및 문제점¹⁾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 및 서비스 중인 종합 지표체계로는 사회지표, e-나라지표, 삶의질지표, 국가주요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지표가 있다. 이 지표체계는 환경영역에 중점을 둔 주제지표로 볼 수 있으나, 정부의 녹색성장기본 계획에 따라 구축되어 서비스 중인 주요한 지표체계 중 하나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국가지표 개발이 한창 논의 중이다.

그런데, 지표 작성 및 서비스 주체가 모두 통계청인 경우는 사회지표, 삶의질지표, 국가주요지표, 녹색성장지표 뿐이다. e-나라지표는 각 부처에서 선정 및 작성된 지표를 통계청에서 관리 및 서비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부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녹색성장지표와의 연관성으로 통계청에서 서비스 중이다. 한편, SDGs 글로벌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편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통계청 지표체계 조정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제외하고, SDGs 글로벌지표²⁾를 포함한 6개 지표체계의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겠다.³⁾

사회지표는 우리사회의 사회·경제 및 문화적 상황의 변화 모습을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979년 최초 발간되었다. 이후 1995년, 2004년, 2012년 개편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e-나라지표는 2005년 8월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한 국정점검 및 국정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통계지표 발굴, 자료작성 및 통계체계도 작성, 전산검색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서 2006년 6월 행정부 내에서 서비스를 시작, 9월에 일반국민들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총 41개 기관에서 740개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표체계 관리 및 서비스를 통계청에서 담당한다. 삶의질지표는 2011년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통계청 내 삶의 질 지표정의위원회를 두고 여러 차례 개편과 수정을 거쳐, 2017년에 국민 삶의 질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르고 있다.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웰빙(wellbeing)과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집약된 통계로 2013년에 개발 작업에 착수하여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녹색성장지표는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SDGs 글로벌지표는

- 1) 2017년 상반기 연구과제인 ‘한국의 주요 지표체계 비교연구’(박영실·김석호·김인겸, 2017) 연구과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 2) SDGs 국가지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의 근간이 되는 SDGs 글로벌지표를 검토하고자 한다. SDGs 국가지표와 구별하기 위해 현재 글로벌 수준에서 채택한 지표를 SDGs 글로벌 지표로 칭하였다.
- 3)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세분화된 집단이나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한 ‘e-지방지표’, ‘지역사회지표’, ‘일가정양립지표’와 외부기관에서 작성 중인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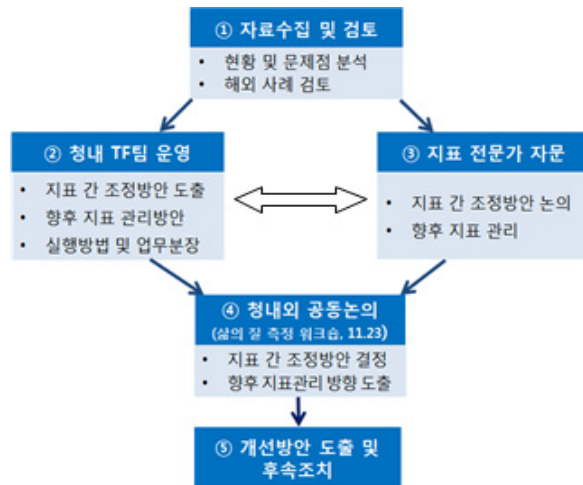
2015년 9월 제70차 UN총회에서 인류의 공동발전을 목표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핵심이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232개 글로벌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실 외(2017)는 6개 지표체계들을 작성목적, 영역, 개별 지표 수준에서 비교해 보았다. 먼저 작성목적 및 영역 수준에서 볼 때, 국민 삶의 질 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국가주요지표체계 간에 겹치는 부분이 두드러졌다. 특히 삶의질지표와 한국의 사회지표는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서 중복되고, 국가주요지표와 사회지표는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서 중복이 발견되었다. 영역 및 개별 지표수준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사회지표, 삶의질지표, 국가주요지표 간에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러 지표체계에서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관리체계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사실 2009년 이전에는 지표체계 또한 승인제도를 통해 관리하였다. 그러나 국가승인통계 종합정비 시행계획(2009)에 따르면 지표체계를 각종 통계를 단순 분류 또한 수집·수록한 종합통계 등으로 간주하여 한국의 사회 지표, 한국의 인계교육지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를 승인취소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이후 지표체계는 별도의 관리 없이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작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3절 추진방법

통계청 내 지표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절차를 거쳤다. 첫째, 현 지표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4) 해외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둘째, 통계청 내 TF(Task Force)팀을 운영하였다. 여기에서는 지표 간 조정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지표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삶의질 측정 워크숍에서 지표체계 조정방안을 공론화하였다 ([그림 3-1]참조).



[그림 3-1] 지표체계 조정 방법 및 절차

4) 다양한 국가지표 간 체계적 관계 모색 세미나(2016년 12월) 및 박영실 외(2017)를 기반으로 하였다.

1. 해외사례 검토

지표체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각국의 정보를 얻기 위해 일차적으로 해당 국가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표체계의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지표체계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체계 간 조정방법과 관련된 법 혹은 내규(regulation)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9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하였다.⁵⁾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지표체계 간 조정 및 절차, ② 개별 지표 선정 및 관리, ③ 지표체계 서비스 방법, ④ 기타 사항 등이다. 설문조사는 핀란드, 뉴질랜드,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핀란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5개국이 응답하였다.⁶⁾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들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 지역에 속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국가들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 산물인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의 견고한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국가적 상황에 따라 지표체계를 유지, 변형, 소멸시키는 모습을 차별적으로 보이고 있어 주목해 볼 만하다.⁷⁾ 한편, 비영어권 국가의 홈페이지 분석과정에서의 한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지표체계에 대한 접근의 한계 등이 있었음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2. 청내 TF팀 운영 및 전문가 자문, 워크숍 개최

청내 TF팀은 통계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책지표연구실, 통계정책과, 사회통계기획과, 통계서비스기획과가 참여하였다. 2017년 9월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이래 약 1회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지표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였으며, 2차 회의에서는 해외사례 검토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해 토의하였다. 3차 회의에서는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도출된 조정방안에 대한 정밀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조정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표체계 조정에 대한 공동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회 국민 삶의 질 측정 워크숍(2017년 11월 23일)에서는 오전 세션을 삶의 질 지표와 타(他) 지표체계 간 관계정립으로 구성하였다. 이 세션에서는 해외 사례 검토, 청내 TF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5)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 I.을 참고

6) 영국은 해외사례 검토 대상에서 추가되었으므로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일러둔다.

7)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지표체계를 작성하여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 이에 따라 UNCS(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마련(1993) 및 개정(2001, 2006)을 하였다. EU 차원에서는 2001년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를 채택(2001) 및 개정(2006)하고 이 전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SDI)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이 개별 국가차원으로 확산된 것이다.

제4절 추진결과

1. 해외사례 검토 결과

여러 지표체계의 공존과 해당 지표체계 간 유사·중복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연 한국적인 상황에서만 제기된 것일까? 이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해 온 여러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가. 핀란드

- **(통계청 특징)**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소속되어 있는 통계청은 공식통계의 2/3를 생산하는 집중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다.⁸⁾



[그림 3-2] 핀란드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8) 우리나라 통계청은 2017년 10월 현재 412개 기관에서 1,052종의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그 중 60종을 직접 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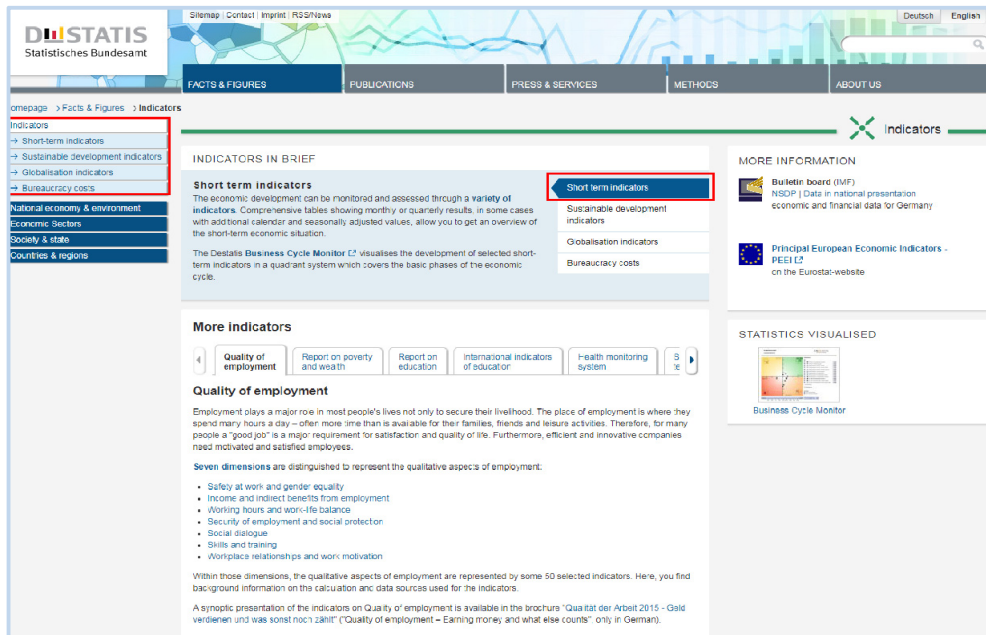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핀란드 통계청은 [그림 3-2]처럼 Findicator라는 별도 지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 사이트에서는 개별 지표(individual indicator)⁹⁾와 지표체계 모두를 서비스 중이다. 현재 SDI와 웰빙지표(Well-being indicators in Findicator)를 서비스하고 있다. 각 지표체계를 선택하면, 해당 지표 체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하위영역, 개별지표를 볼 수 있다.
- **(SDI)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전략인 ‘The Finland we want by 2050’**을 근간으로 마련되었으며, 8개 영역 3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8개 영역은 웰빙을 위한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for wellbeing), 시민참여사회(society of participation citizens), 지속가능한 일(sustainable work),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및 지역 커뮤니티(sustainable communities and local communities), 탄소중립사회(carbon-neutral society), 자원절약경제(resource-wise economy),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sustainable lifestyle), 자연에 대한 존중(respect for nature)이다. 한편, ‘The Finland we want by 2050’는 2016년 5월 SDGs를 반영해서 업데이트 되었으며, SDI 또한 SDGs 글로벌지표를 반영하여 개편할 예정이다.
- **(웰빙지표)** 8개 영역, 2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8개 영역은 물질적 생활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s), 생산 혹은 주요 활동(productive or main activity),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여가 및 사회적 상호작용(leisure and social interaction), 경제적 및 신체적 안전(economic and physical safety), 거버넌스 및 기본권(governance and basic rights), 자연 및 생활환경(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이다.
- **(지표체계 간 관계)** 두 지표 체계는 서로 다른 전통에서 출발한 것으로 중복성은 낮아 보인다. SDI는 리우+20회의의 전통을 잇고 있어 환경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웰빙지표는 유럽통계처(Eurostat)의 삶의 질(Quality of life)¹⁰⁾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있다.
- **(지표체계 조정)** Eurostat의 가이드라인이나 지표작성과정에서 마련된 선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9) 개별 지표는 12개 세부영역으로 구분되어 서비스 중이다. 12개 영역은 경제, 노동시장, 소득·지출부채, 건강, 인구, 안전, 참여, 교육·연구, 커뮤니티·구조·교통, 문화, 에너지, 환경·자연자원이다. 이 중 한 영역을 선택하면 이 영역에 포함된 세부 지표들이 펼쳐지고 이 중 다시 한 지표를 선택하면 해당 지표의 정의, 시계열자료, 출처 등을 볼 수 있다.

10)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과 웰빙을 대등한 수준에서 상호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독일

- **(통계청 특징)** 독일 통계청은 조직적, 재정적, 인사측면에서 연방내무성의 행정 감독을 받고 있으나, 통계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의 통계가 연방통계청에서 작성되고 있는 집중형 통계제도이다. 예외적으로 금융-국제수지통계, 노동시장통계, 일부 운수통계, 일부 농업통계 등이 소관부처에서 작성되고 있다(최봉호, 2004).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의 Facts & Figures 메뉴의 하위 영역에 지표를 서비스하고 있다. 종합 지표체계와 주제 지표체계로 구분된다([그림 3-3] 참고). 종합 지표체계에는 네 종류가 있다. 단기지표(Short term indicators), SDI, 세계화지표(Globalization indicators), 관료제비용(Bureaucracy costs)이 그것이다.



[그림 3-3] 독일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 **(SDI)**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독일의 지속가능발전전략에 기반하여 독일통계청에서 작성·보고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이 독일 지속가능발전전략(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으로 개정되면서 지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었다. 기존지표의 상당수는 새로

개정된 지속가능발전전략에 포함되었으며, 일부는 약간 조정되거나 새로운 세부 목표로 구성되었다. 기존 지표체계는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삶의 질(quality of life),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 국제적 책임(international responsibility)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던 반면에 새로운 지표체계는 17개 목표(63개 지표)로 재구성되었다.

- 한편, 단기지표는 경제발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2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화지표는 공식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외부 경제 관계(external economic relations), 기업, 운송 및 환경 분야로 나뉜다. 관료제비용은 정부 규제 및 입법 프로젝트와 관련한 지표로 관료제 축소와 과도한 새로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측정도구이다.
- **(기타 지표체계)** 위와 같은 종합 지표체계와 함께 고용의 질, 빈곤과 부, 교육국제지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과학과 기술 지표, 구조지표체계 등의 주제 지표체계도 서비스 중이다.
- **(지표체계 조정)** 지표체계는 정책수요에 따라서 작성되며,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 관계 하에서 지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조정기제가 별도로 없음을 밝히고 있다.

다. 네덜란드

- **(통계청 특징)** 네덜란드 통계청은 1899년 설립되었으며,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소속에서 2004년 1월 법적으로 독립기관이 되었다. 현재 네덜란드 통계의 95%를 생산하는 집중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다.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네덜란드는 핀란드 및 독일과 같이 지표 전반에 대한 일목요연한 서비스보다는 주요 지표체계를 통해 현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표적인 지표체계에는 녹색성장(green growth), 경기순환시계(business cycle tracer), 지속가능영역(area of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있다([그림 3-4] 참고).
- **(지속가능영역과 지속가능발전)** 두 지표체계는 거의 동일하며, 네덜란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측정하는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성 모니터(Sustainability Monitor)의 핵심적인 두 축이다. 전자는 56개 지표로 구성된 개념 분류(conceptual categorization)인 반면, 후자는 126개 지표로 구성된 주제 분류(thematic categorization)의 성격을 갖는다(UNECE 2013).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 분류는 지금여기(here and now)에서의 삶의 질, 나중(later)을 위한 자원, 국제적 차원(elsewhere)으로 분류된다. 3개의 차원은 다시 여러 개의 지표로 구성되는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 주제 분류는 1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웰빙, 기후와 에너지, 지역 환경의 질, 생물다양성 및 경관, 건강, 주택 및 주거환경, 이동성, 안전, 사회 참여 및 신뢰, 교육과 지식, 복지와 경제, 재정 지속가능성, 무역 및 원조, 불평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의회의 ‘복지 정의에 대한 임시위원회(Temporary Committee on a Board Definition of Welfare)’는 그간 세 차례(2009년, 2011년, 2014년)에 걸쳐 공표해 온 네덜란드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를 웰빙에 대한 모니터(Monitor of Well-being)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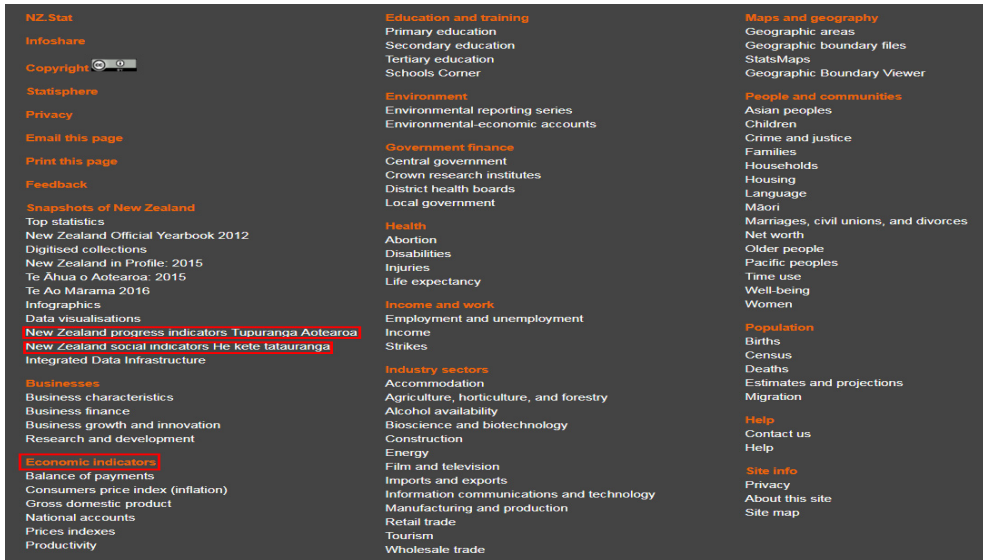
[그림 3-4] 네덜란드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 **(기타 지표체계)** 녹색성장 지표는 환경효율(environmental efficiency), 자연자산기반(natural asset base), 환경적 삶의 질(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정책대응 및 경제적 기회(policy response and economic opportunities) 영역 하에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순환시계는 경제영역 하위의 금융 및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DGs 지표)** 네덜란드는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네덜란드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보고서(‘Measuring the SDGs: An Initial Picture for the Netherlands’)를 발간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일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웰빙 추구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그간의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을 수정 중에 있다.

- 이 보고서에서는 SDGs 지표를 두고 CES(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s) 프레임 워크에서 선정한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비해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며, 경제·사회·환경 간의 상충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 **(지표체계 조정)** 지표체계는 정책수요에 따라서 작성되며,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조정기제가 별도로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럽 통계처(Eurostat)의 가이드라인이나 지표작성과정에서의 선정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라. 뉴질랜드

- **(통계청 특징)** 뉴질랜드 통계법(Statistics Act 1975) 6조 1항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장관의 서면 승인 없이 기존 조사를 변경하거나 다른 통계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통계 생산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통계청이 가지고 있고 인구·고용 등 사회 통계, 소비자물가·가격지수·GDP·국민계정 등의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환경 영역 등 거의 모든 통계를 직접 생산하고 있어 뉴질랜드는 집중형 통계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뉴질랜드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섹션의 Snapshots of New Zealand 하에서 뉴질랜드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뉴질랜드 발전지표(New Zealand progress indicators)와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 분류체계로 경제지표(Economic indicators)가 있다([그림 3-5] 참고).
- **(발전지표)** 뉴질랜드 발전지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how well we are living),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되고 있는지(how resources are being distributed and used),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고 있는 것(what we are leaving for future generations)을 살펴보기 위해 구축되었다.
- 경제·사회·환경의 3개 영역 하에 16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영역 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경제사회, 경제환경, 사회환경이라는 중첩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표 동향을 긍정(positive), 중립(neutral), 부정(negative)으로 평가하여 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5] 뉴질랜드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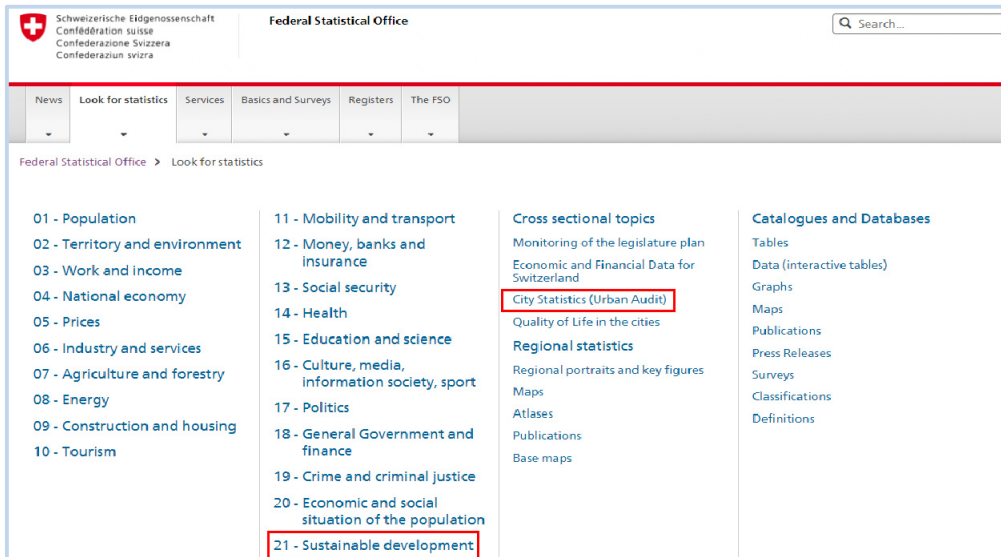
- 이 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접근을 활용한 뉴질랜드의 발전 측정: 2008(“Measuring NZ’s progress us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2008”)에서 제시된 85개의 지표 중 대표적인 16개를 선정한 것이다. 이것은 브룬트란트 보고서(1987)에서 언급된 지속가능발전정의의 틀을 품고 있는 Framework for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와 관계된다. 이 프레임워크는 Monitoring progress towards a sustainable NZ(2002), Review of the Monitoring progress towards a sustainable NZ report(2003)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이후 뉴질랜드의 발전(Progress)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해 SDI 지표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SDI 지표에 관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접근법을 활용한 뉴질랜드의 발전에 관한 주요 결과: 2010(Key Findings on New Zealand’s Progress Us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2010)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서비스 하였다.¹¹⁾
- **(사회지표)** 뉴질랜드 사회지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용한 사회통계를 제공하며, 사회통계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웰빙(people’s lives and their well-being)을 묘사한다고 설명한다.

11) 뉴질랜드 통계청은 지속가능발전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과정에서 스위스 MONET팀의 지원을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 사회지표는 건강, 인지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 교육, 노동시장(labor market),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 정부에 대한 신뢰와 참여(trust and participation in government), 문화와 정체성(culture and identity), 여가와 문화(leisure and arts), 개인안전과 보안(individual safety and security), 사회교류(social connections)의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발전지표와 사회지표 간 관계) 두 지표체계 간 개별 지표 수준에서의 중복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발전지표 사회영역 하의 가처분 소득(disposal income) 지표는 사회지표 생활수준 영역의 개인당 가처분 소득 지표와 일치한다. 또한 발전지표 사회영역의 실업률 지표는 사회지표 노동시장 영역의 실업 지표와 중첩된다.

마. 스위스

- (통계청 현황) 스위스 통계청은 내무부(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소속이다. 통계청을 포함한 40개 부처 및 외부 기관에서 공식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 체도를 채택하고 있다. 통계청 산하 지방사무소는 없지만 주요 주(cantons) 및 지방정부에서 지역별 통계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분산형 구조는 필연적으로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스위스 통계청은 중앙 통계기관으로써 통계 조정기능을 수행하며, 관련 위원회를 총괄 및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림 3-6] 스위스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스위스 통계청은 앞서 살펴본 국가들처럼 통계와 구별되게 지표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주제별 통계 영역(Look for statistics)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관련 통계와 지표가 함께 제시되는 식이다. 이에 따르면, 통계섹션의 지속가능발전 영역에 MONET(Monitoring Nachhaltiger Entwicklung : Monitoring sustainable development) 지표체계를, 교차 주제 섹션(cross sectional topic)에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입법안을 모니터링하는 지표체계를 운영 중이다([그림 3-6] 참고).
- **(MONET)** ‘지속가능발전 전략(2000)’에 따라 통계청이 환경 및 국토 담당부처와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체계이다. Monet는 현재 SDGs를 고려하여 2016년에 개정을 진행하였다. 내·외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스위스 맥락에 맞게 SDGs 모니터링을 위한 MONET 시스템을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CES, 2017).
 -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개념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연방 정부의 핵심가치인 사회 통합, 환경적 책임성, 경제적 효율성 영역으로 재구성하고 하위 12개 주제 영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총 73개의 지표로 측정된다.¹²⁾ 여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의 진전을 측정하기 위한 17개의 핵심지표(key indicators), 글로벌 차원에서의 SDI 9개 및 SDGs 지표 48개가 포함되어 있다.
 - 한편, 지역 수준(Sub-national level)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인 ‘Cercle Indicateurs’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 **(삶의질지표)** 지속가능발전의 특정 측면, 즉 삶의 질에 초점을 둔 지표 시스템인 ‘City statistics’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유럽의 새로운 도시 의제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유럽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일부인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action)을 발전 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CES, 2017).
 - 스위스에서 ‘삶의 질’ 개념은 OECD “How’s Life”에 기초하고 있으며, 도시 수준에서 다양하고 상호 연관된 차원에서의 인구집단의 웰빙 측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 12개 세부영역은 생활환경(living conditions), 건강,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교육 및 문화(education and culture), 연구 및 기술(research and technology), 일(job), 경제제도(economic system), 생산과 소비(production and consumption), 이동 및 운송(mobility and transport), 에너지 및 기후(energy and climate),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이다.

이 지표는 11개 영역 3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소득과 일(income and jobs), 주택상황(housing conditions),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 개인 보안(personal security),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이동성(mobility), 문화와 여가(culture and leisure), 경제적 맥락(economic context), 인구 통계 맥락(demographic context)이다.

- **(지표체계 조정)** 스위스 통계청 또한 지표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지표 선정 및 개발이 정책입안자와 통계담당자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지표 체계의 목적, 차이점, 요구사항, 구성방법, 시스템의 한계 및 이점, 담당자, 준수해야 할 규칙 등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작성 중이며, 2018년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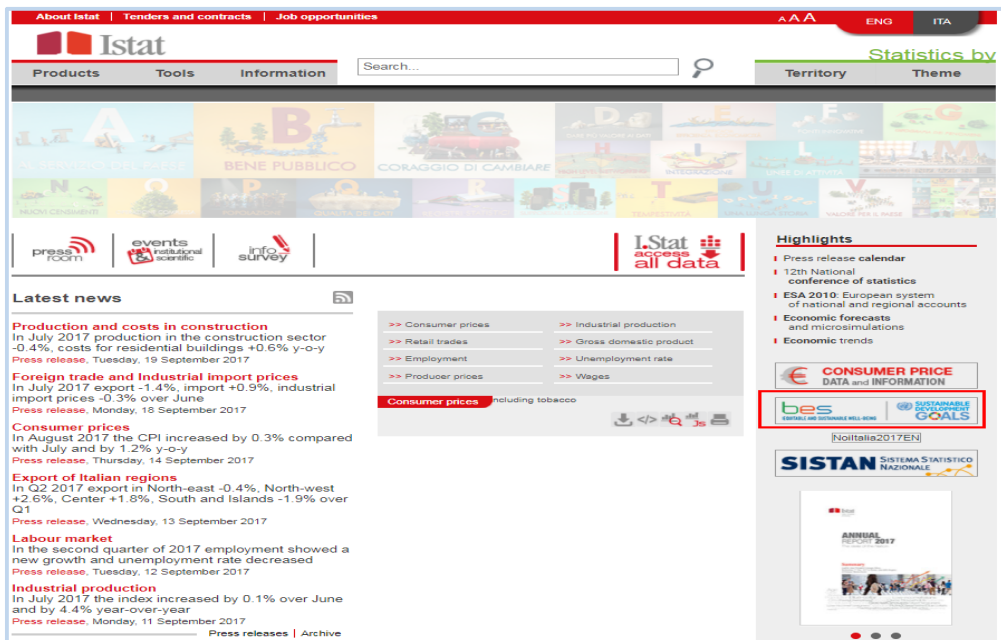
바. 프랑스

- **(통계청 특징)** 프랑스는 중앙통계기관인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에 많은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집중형 성격이 강한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통계개발원, 2009).
 - 프랑스 국가통계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통계정보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Statistical Information, CNIS), 공식통계서비스(Official Statistical Service, OSS), 공식통계당국(Official Statistical Authority; ASP)이다. CNIS는 ESAC(Europe Statistical Advisory Committee, ESAC) 카운터파트너로 자문 역할을 하며, 통계 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의 컨설팅 포럼이다. OSS에는 INSEE와 각 부처의 통계기구가 관련된다. ASP는 ESCAB(European Statistical Governance Advisory Board)의 카운터파트너로 European Statistics Code of Practice와의 일치를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INSEE는 자료수집, 공식통계생산, 자료분석 등을 맡고 있는 OSS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정은 능력있는 스태프의 채용, 타부처와의 인사교류, 통계프로그램 위원회, 노하우의 교류 등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프랑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지표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검색 등을 통해서 프랑스의 경우 새로운 부 지표(new wealth indicators) 및 SDGs 지표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새로운 부 지표) 2015년 4월 13일 법안 통과와 함께 프랑스는 새로운 10개 부의 지표(new wealth indicators)를 갖추게 되었다. 고용, 투자, 국가 부채, 보건, 불평등, 교육, 환경보호, 인지된 웰빙(perceived well-being)을 다루는 이 지표들은 GDP를 넘어선 발전을 측정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 이 지표들은 2030의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의 프랑스 버전인 국가 개혁 프로그램(national reform programme)과 일치한다(HLPF, 2016).
- (SDGs 지표) 프랑스는 SDGs 지표 개발 과정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현재 INSEE는 SDGs 글로벌지표를 분석하고 국내 가용성을 검토하여 2017년 3월에 110개 지표에 대해 INSEE 홈페이지에 엑셀형식으로 보고하였으며 매년 업데이트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 이탈리아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지표체계) 이탈리아 통계청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지표는 웰빙과 SDGs이다. 이 지표들은 통계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 중간에 있는 배너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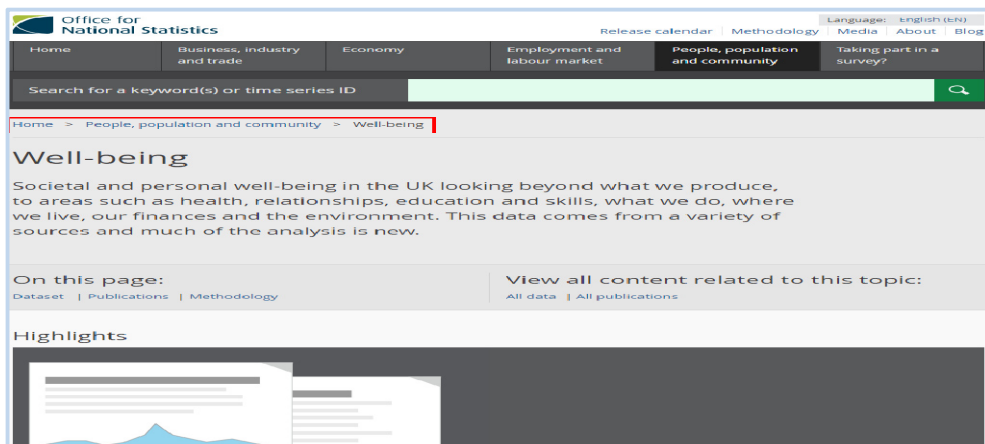


[그림 3-7] 이탈리아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 **(웰빙 지표)** 이탈리아에서는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표체계인 bes(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를 개발하였다. 2010년에 처음 작성된 bes는 통계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표체계는 12개 영역 130개 지표로 구성된다.
 - 12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 건강(health),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 정치 및 제도(politics and institutions), 보안(security),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 경관 및 문화유산(landscape and cultural heritage), 환경(eniroment), 연구와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s),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
- **(SDGs 지표)** 17개 목표별로 이탈리아에서 가용가능한 지표들에 관하여 지표값, 출처, 조사명, bes와의 중복여부, 지표정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 영국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영국 통계청도 별도의 포털이나 카테고리들 통해 지표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주제별 통계섹션에 통계와 함께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림 3-8]에서 보듯 인구 및 커뮤니티 섹션 아래에 웰빙 지표가 있다. 이와 함께 SDGs 지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사실, 영국은 SDI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SDGs 등장과 함께 공표가 중단되었다. SDGs, SDI 그리고 웰빙 지표 간 중복적인 측면으로 인해 혼란스럽다는 것과 SD에서 SDGs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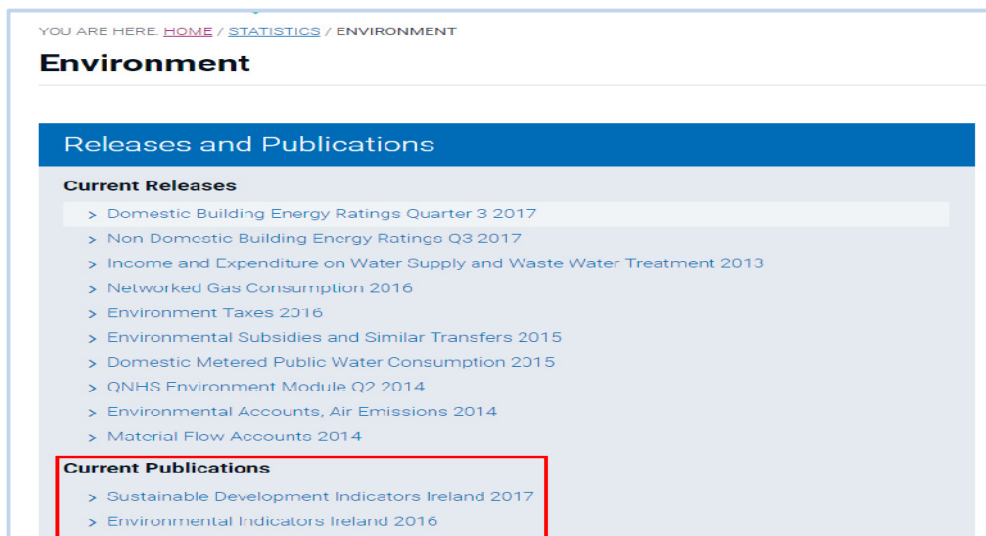


[그림 3-8] 영국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 **(웰빙지표)** 영국 통계청은 국가 웰빙을 일 년에 두 번 측정하고 있다. 10개 영역 41개 지표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개인웰빙(personal well-being), 우리의 관계(our relationships), 건강(health), 하는일(what we do), 사는 곳(where we live), 개인 금융(personal finance), 경제(the economy), 교육 및 기술(education and skills), 거버넌스(governance), 자연환경(the natural environment)이다. 이 중 개인웰빙, 경제웰빙, 환경계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기 간행물을 발간 중이다.
- **(SDGs 지표)** SDGs 이행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SDGs 관련 예비 보고서 “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향한 발전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How should the UK report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summary of responses from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를 발표하였고, 2017년 말에 SDGs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를 공표할 계획이다.

자. 아일랜드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아일랜드 통계청에서도 지표에 관한 별도의 서비스 채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지표 분석보고서를 관련 영역에 게재한 정도이다. 일반 통계 간행물(general statistical publication) 영역에서 Measuring Ireland’s Progress 보고서를, 환경영역 하에 지속가능발전지표와 환경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 environmental indicators)에 대한 보고서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3-9] 아일랜드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 **(발전지표)** Measuring Ireland's Progress는 5개 영역 58개 지표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영역은 사회(16개), 경제(20개), 환경(9개), 교육(8개), 건강(5개) 영역이다. 이 보고서는 2015년까지 발간되었다.
- **(환경지표)** 대기(air), 온실가스 및 기후 변화(green house and climate change), 물(water), 토지활용(land use), 에너지(energy), 교통(transport), 쓰레기(waste), 생물 다양성과 유산(biodiversity and heritage), 환경경제(environmental economy)의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SDI)** 이 지표체계는 A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Ireland에 근거하여 아일랜드 통계청에서 개발하였는데, Measuring Ireland's Progress와 환경지표를 보완한 것이다. SDI는 글로벌(국제비교), 경제, 사회, 환경영역 하에 5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¹³⁾

차. 시사점 도출

각국의 사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하는 용어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웰빙(삶의 질) 혹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축으로 지표체계가 작성 및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¹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흐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Beyond GDP 측정이다. GDP를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 측정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웰빙이나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를 종합한 것이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이며, OECD 등에서 웰빙 측정 프레임워크 등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흐름은 SDGs이다. SDGs는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회의, '12.6.)와 UN 사무총장 주도의 Post-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작업 논의가 통합되어 합의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의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개념은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 및 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진화하였다. 2012년 6월에 개최된 Rio+20 회의에서는 SDGs 수립 계획에 합의하였으며, 이어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목표 및 세부목표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MDGs가 종료된 이후 후속 목표의

13) 현재 SDI가 Measuring Ireland's Progress를 대체하는지는 불분명하나, 후자는 2003~2015년까지 매년 발간되다가 2016년 자료는 없는 상태이며, SDI 보고서는 2년 주기로 발간되며 현재 2017년 자료가 발간된 상태이다.

14)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웰빙, 스위스 및 한국에서는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웰빙은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

필요성을 논의하던 UN 총회 논의와 통합되면서 2015년 9월 SDGs가 채택되었다. 개별 국가들은 이러한 두 가지 흐름 모두 혹은 어느 하나의 흐름을 국가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2년 Rio회의의 산물인 SDI는 환경에 초점을 두었지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SDGs의 등장에 따라서 각 국가는 SDI와 SDGs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¹⁵⁾

먼저, 웰빙과 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가 공존하고 있는 국가로는 핀란드와 스위스가 있다. 핀란드는 두 지표체계 모두 국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스위스는 도시 지역에 한정된 삶의 질 지표를 수립 중이다. 웰빙을 다루는 국가는 영국, 지속가능발전을 다루는 국가는 독일과 아일랜드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을 웰빙으로 전환하는 권고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웰빙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통합한 bes 지표체계를, 프랑스는 Beyond GDP 흐름을 이어받아 새로운 부 지표를 개발하였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는 지속가능발전을 근간으로 한 발전(progress)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SDI에 SDGs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SDGs를 반영하여 SDI를 재조정된 경우는 독일, 스위스, 핀란드(예정), 글로벌 수준의 SDGs 지표의 국내 통계 가용성을 평가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아직 국가적인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네덜란드와 영국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경우 기존 지표체계가 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대한 다양한 태도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나 독일처럼 기존 지표체계를 새롭게 변형하는 경우도 있고, 영국처럼 유사한 개념의 등장으로 하나의 지표체계를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과정에 명확한 법적 근거나 내규(regulation)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설문에 응답한 5개국 모두 통계청 내 지표작성과 관련된 내부 규정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오히려 지표체계는 정책 수요에 따라서 작성되며 이에 따른 정책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조하였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우, 좀 더 상위 지역단위인 유럽통계청 차원에서 작성된 지표 작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할 것으로 유추된다.¹⁶⁾

15)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창설,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중이다. 이 지표체계는 유엔 지표 체계를 근간으로 하며, 환경부(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 및 관리 중이다. 2006년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사회·환경·경제 3개 분야의 77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선정되었으며 이후 개정 등을 거쳐 현재 84개 지표체계에 이르고 있다. 향후 SDGs의 반영여부가 관건이다.

16) Towards a harmonised methodology for statistical indicators(part1, 2, 3)

〈표 3-1〉 국가별 지표체계 유형 비교

구분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지표 체계 유형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 (웰빙으로 전환예정)	○	○	○ (Progress 지표와 환경지표 통합)	-	-	폐지
		SDGs 반영	○	미정	미확인	○	미확인	SDGs 지표 데이터 가용성 평가 결과 제공	○(예정)
		Progress			○ (SD 기반)		○		
웰빙(삶의 질)	○	-			○	-	-	○	
기타		단기지표, 세계화지표, 관료제비용	녹색성장 경기순환시계	사회지표, 경제지표	임범지표	환경지표	새로운 부 지표(Beyond GDP 측정)	-	-
지표체계 간 조정 특징		SD를 SDGs에 반영하여 제조업	SD, 웰빙, SDGs 간 개념 연관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	SD 지표가 있었으나, Progress Indicator가 이를 반영하면서 기존 지표체계 작성 중지	각 지표체계별 가이드라인 발간예정	SD는 Progress +환경지표를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복 최소화 노력		지속가능발전과 웰빙을 통합하는 새로운 지표체계 구성	웰빙, SD, SDGs 간 혼돈문제 제기, SD에서 SDGs로의 관심이동에 따라서 SDI 발간 중지

2. 청내외 공론화 결과

청내 TF팀은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하여 지표체계 조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 개선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워크숍 결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워크숍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재열 교수는 지표체계 간 조정이 중요한 이유를 시대적 측면과 거버넌스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주요지표 및 삶의질지표, 사회지표 등은 풍요의 역설 속에서 등장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표체계들은 경제·사회·환경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영역은 지표체계의 목적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 수준의 웰빙, 국가 발전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표체계 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국제적인 분위기 등을 반영한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개인과 사회 수준의 웰빙을 측정하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표체계를 보면 굉장히 상세하고 주관적인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웰빙계정(National Wellbeing Account)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 한국의 지표체계는 그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념적 수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표 수준에서는 유연(flexible)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연구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서 그 안에서 지표체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표체계 조정은 집중형 통계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한국의 통계청은 이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준 교수는 통계청이 지표 활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통계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통계 이용자가 정부, 학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면서 ‘명분’과 ‘책임’이 필요한데, 책임은 ‘정확성’과 ‘신뢰성’으로 표현되므로 지표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명분’과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플랫폼과 달리 공공영역에서는 경쟁을 통해 조정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표의 경우 통계청에서 통합이나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핵심은 지표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며, 서비스되는 과정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연하였다.

또한, 삶의질지표는 스티글리츠 위원회 등 국제적인 논의에서 촉발되었지만 국내적으로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만들어 졌으므로 향후 지표조정 과정에서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구체화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지표를 체계화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종호 박사는 SDGs 글로벌지표의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기반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현재 지속가능발전 논의는 녹색성장과 그 위상관계를 재정립하는 법, 제도적 개편이 논의 중이며,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이후 지표 개발 과정에서 국가 주요지표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관계를 재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청내 토론자로는 사회통계기획과와 통계정책과에서 참여하였다. 사회통계기획과에서는 사회지표는 삶의질지표를 거의 포괄하고 있어서 사회지표와 삶의질지표를 조정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다만, 미시적인 차원에서 중복되는 지표를 세밀하게 통합,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 편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통계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지표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표통합 및 조정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내부 규칙 및 가이드라인 등을 구축하여 지표를 관리해야 함을 부연하였다.

통계정책과에서도 지표체계의 경우, 승인통계만큼 엄격한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었다. 정책 활용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통계청은 정책수립, 집행 및 평가 과정에서 통계구비 여부를 점검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향후에는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에도 반영, 확대하고 정부업무평가와 연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 통계 뿐 아니라 지표체계까지 확대 반영하려면 대표성 있는 지표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편 방안의 큰 방향에 대해 공감,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개편 방향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정리가 되었다.

제5절 지표체계 개선방안

1. 지표체계 간 개념비교

가. 접근법에 따른 관리방안의 이원화

지표체계를 유형화하는 일은 명쾌하지 않으나 보편적으로 가장 통용되는 접근법은 개념적 접근법과 정책적 접근법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UN, 2009). 개념적 접근법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지표를 조직화하는 것을 뜻하며, 정책적 접근법은 목표(goal)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를 조직하거나(goal based framework), 주요한 이슈나 문제점 위주로 지표를 조직화(issue based framework)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작성 혹은 서비스 중인 지표체계 중 명백하게 개념적 접근법에 속하는 경우는 없다. 인과관계에 따른 지표체계 구성을 위해서는 원인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혹은 과정적인 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작성 중인 지표체계는 대부분 결과 혹은 성과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체계의 작성목적이 구체적인 정책에 기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는 측면에서 개념적 접근법과 정책적 접근법이라는 구분을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e-나라지표 및 녹색성장지표의 경우 정책적 접근법에 근거한 지표체계인 반면에 이외 다른 지표체계 예컨대 삶의질지표, 사회지표, 국가주요지표는 개념적 접근법에 좀 더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지표체계는 구성 당시 이론적인 통계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SDGs 지표의 경우, 정책적 접근법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삶의질지표나 국가주요지표의 작성목적과 더 가깝다는 측면에서 개념적 접근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정책적 접근법에 속한 두 지표체계는 정책의 생성과 소멸에 따라서 지표체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표체계 간 관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적다. 반면에 개념적 접근법에 속한 지표체계는 이론적인 위상관계 정립이 가능하다.

나. 지표체계 간 개념적 위상관계에 따른 조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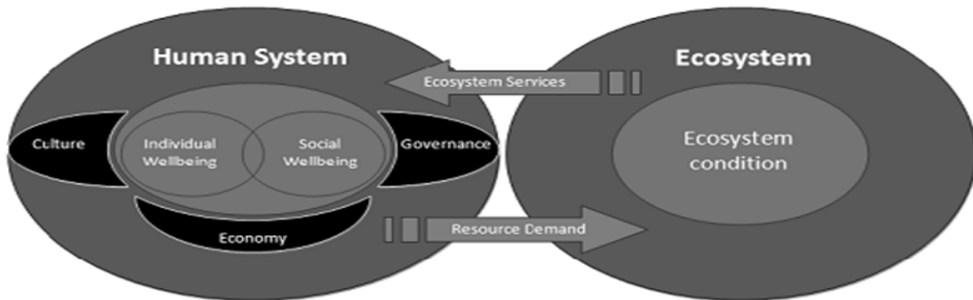
먼저, 이론적인 발전 경로를 추적하여 과연 각 지표체계에서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보았다. GDP 한계가 직시된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 및 환경 영역에서의 지표체계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현 세대 이후 다음 세대까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의 경우 현세대의 경제·사회·환경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주요

지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관심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SDGs는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경제·사회·환경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협력분야도 강조하고 있어 가장 포괄적인 지표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고).

<표 3-2> 각 지표체계가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

구분	경제		사회		환경		다른 국가 (개도국)
	현세대	다음세대	현세대	다음세대	현세대	다음세대	
GDP	◎	×	×	×	×	×	×
삶의질지표	△	×	◎	×	△	×	×
사회지표	○	×	◎	×	○	×	×
국가주요지표	◎	○	◎	○	◎	○	×
SDGs	◎	△	◎	○	◎	○	○
녹색성장	◎	○	×	×	◎	○	×
e-나라지표	○	×	○	×	○	×	×

이는 OECD의 발전 프레임워크 속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그림 3-10] 참고).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사회가 추구하는 최종목표를 개인의 웰빙으로 두고 이것을 지지하며 영향을 미치는 문화, 경제, 거버넌스까지를 포괄하는 인간체계(Human System)와 글로벌한 환경의 생태체계(Ecosystem)의 두 영역으로 전체 사회를 구분했다. 물론 인간체계와 생태체계 상호간에 자원관리(Resource Demand)의 흐름과 생태자원과 서비스 제공(Ecosystem Services)의 흐름으로 서로 연결된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이재열 외, 2016). 여기에 지속가능발전에서 도출된 현재와 미래세대에 대한 개념이 결부된다.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미래세대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세대 간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림 3-10] OECD 발전 프레임워크

이러한 틀에 따라서 현재 통계청 내 주요 지표체계 또한 개인적 수준의 삶의 질과 국가 수준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사실 삶의 질 지표 이외에도 사회지표와 국가주요지표 모두에 녹아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각 지표 체계를 삶의 질과 발전, 개인과 국가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기능적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지표는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의 발전이라는 양 스펙트럼에서 중간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지표의 발전과정을 보면 사회지표가 삶의 질 지표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지표의 내용적 관계를 보더라도 둘은 매우 밀접하다. 삶의 질 지표는 성과중심의 8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사회지표는 삶의 질을 포괄하여 사회변화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과지표뿐 아니라 투입, 과정 지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삶의 질지표는 사회지표의 부분집합의 성격을 갖는다. 향후 지표 체계 조정 과정에서는 삶의 질지표와 사회지표의 통합이 핵심적 쟁점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 발전 측면에서 살펴보자. 현 지표체계 중 그 수준이 거시적인 경우는 국가주요지표이다. 국가주요지표는 국가발전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인데, 향후 지표체계 조정 과정에서는 국가발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이 일환으로 현재의 국가주요지표를 국가발전지표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국가주요지표는 지표명 자체에 해당 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지 않으며, 주요 지표라는 수단적 의미의 지표명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물론 SDGs 지표는 국가주요지표가 포괄하고 있는 현 세대 및 다음 세대의 경제, 사회, 환경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 또한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SDGs의 이행과 관련한 국가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두 지표체계의 통합을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또한 SDGs 지표는 환경부에서 작성 중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의 개선 안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다. 지표체계의 효율적 서비스 방안

현재 한국 통계청의 지표포털은 개별지표가 아닌 지표체계 중심의 서비스이다.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삶의 질지표, 녹색성장지표의 4가지 지표체계에 대한 설명과 영역별 구분 및 영역 하위에 속하는 개별지표에 대한 메타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혼란은 지표체계 간 명확한 구분의 어려움과 개별지표에 대한 접근의 제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박영실 외, 2017). 그런데 해외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은 통계, 지표, 지표체계, 지수의 개념 및 서비스 방식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는 국가가 드물다는 점이다.

그나마 한국과 유사하게 별도의 지표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핀란드 정도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용어 검색을 하지 않고서는 쉽게 찾기가 힘든 구조였다. 핀란드는 개별 지표와 지표체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지표체계에 대해서는 지표체계의 목적과 구성영역, 지표 수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표체계에 속한 지표는 개별지표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개별지표에 대해서는 지표정의, 계산방법, 시계열그래프 등의 메타정보가 함께 제공되고 있었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논리구조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해 볼 만하다.

이와 함께 지표포털에서 고민해 볼 점은 지표에 근거한 스토리맵이다. 지금까지는 지표의 변동추이를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주었다면, 향후에는 좀 더 시각적으로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적용한 의사소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지표체계의 상당수가 정책에 근거해서 작성되어 정책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책을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6절 향후 계획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지표체계 비교 연구에 이어 지표체계 간 효율적인 조정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 검토 및 청내 TF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인 수준의 삶의 질과 국가수준의 발전이라는 두 축에서 지표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 업무와 행정 업무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의 통합, 그리고 국가주요지표의 발전지표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개별지표 수준에서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박영실 외(2017)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는 지표체계 간 동일 지표의 비일관성문제였다. 예컨대, 동일 지표임에도 지표명이나 지표원천, 값 등에서 차이가 있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지표체계 간 조정과정에서 표준화를 염두해 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표체계 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통계청 내에는 국가주요지표 등의 종합 지표체계 이외에도 일가정양립지표, 지역사회지표, 고용의 질 지표 등 다양한 주제지표가 있다. 이러한 지표체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내 지표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표체계 작성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지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강조로 향후 지표 작성 및 활용이 더욱 증가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지표체계 작성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스가 없어 지표를 작성 및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표체계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환 외(2009),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 통계개발원.
 박영실, 김석호, 김인겸(2017), 한국의 주요 지표체계 비교연구, 통계개발원.
 이재열 외(2016), 2016년 국가주요지표 개편 연구, 통계청.
 최봉호(2004), 유럽 15개국 통계활동 및 시사점, 통계연구시리즈(제04-02), 통계청.

HLPF(2016),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France of the SDGs.
 UN(2009),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Geneva
 UNECE(2013), Framework and Suggested Indicators to Measure Sustainable Development.

해외 통계청 홈페이지

- 핀란드 통계청 (http://www.stat.fi/index_en.html)
- 이탈리아 통계청(<http://www.istat.it/en/>)
- 뉴질랜드 통계청(<http://www.stats.govt.nz>)
- 아일랜드 통계청(<http://www.cso.ie>)
-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insee.fr/en/accueil>)
-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destatis.de/EN/Homepage.html>)
- 스위스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destatis.de/EN/Homepage.html>)
- 네덜란드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cbs.nl/en-gb>)
-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ons.gov.uk/>)

<부 록>

1. 해외 설문조사 주요 항목

1. The procedures of developing and servicing indicator system

1-1. What kinds of comprehensive indicator systems has of Statistics Finland developed and provided?

cf. Indicator system means the system which tells a single story from several individual indicators, comprehensive indicator system encompasses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spects without being limited to certain topic areas

1-2. What procedures does of Statistics Finland follow in deciding to implement a certain comprehensive indicator system? If you have any explicit regulations or implicit internal procedures, please tell us about their detailed contents.

cf. The Statistics Korea acknowledges certain survey or administrative data as official statistics as long as they successfully undergo the certification process. However, there is no certification procedures regarding indicator systems.

1-3. In what procedures are the services for the comprehensive indicator systems of Statistics Finland provided? What procedures do you follow in making any revision or change in the comprehensive indicator systems?

1-4. When any government agency other than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develops and provides indicator systems, is the consultation with your office required in the process?

1-5. Do other government agencies provide the indicator systems similar to those provided by your office?

2. Selecting and managing individual indicators

2-1. Do you have any explicit regulations or implicit internal procedures on selecting individual indicators, standardizing data calculation methods, and disseminating related information? If so, please tell us about their detailed contents.

cf. Please tell us how the official indicators of your country, such as Gini coefficients or employment rate, are selected, calculated, and provided to the public.

3. Other issues regarding indicator system

3-1. Based on your experiences so far, please tell us about the issues which require special attention in developing, managing, and coordinating indicator systems

3-2. Even though of Statistics Finland does not have any indicator system and/or related procedures, please tell us about your experiences in which you felt that it was necessary to develop and provide indicator systems in systematic manners.

2. 해외 지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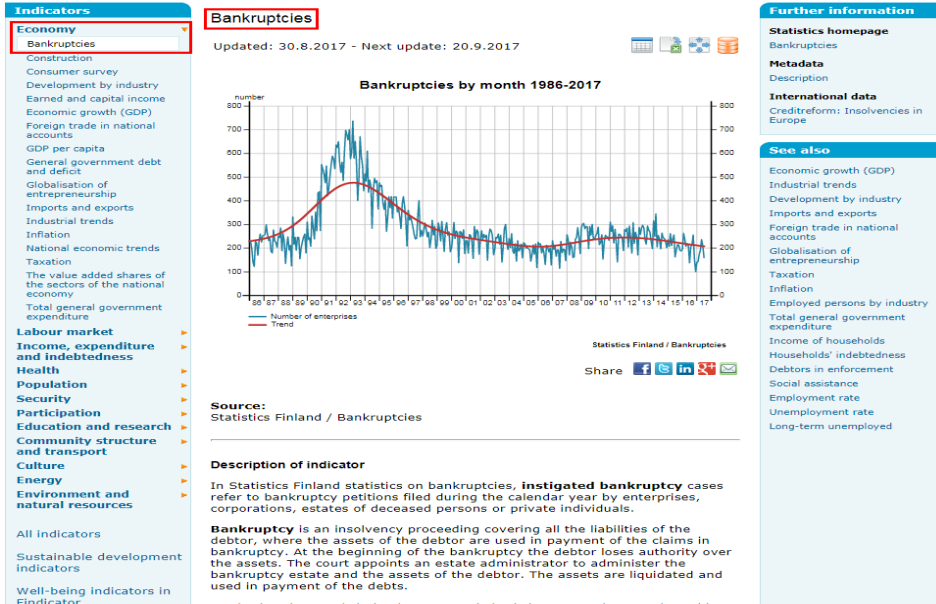
〈부표 3-1〉 핀란드 지표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www.stat.fi/index_en.html
주요 지표체계	http://www.findikaattori.fi/en#_ga=2.238793480.987707060.1505868111-1364532440.1505868111
연락처	tel. +358 29 551 2220 info@stat.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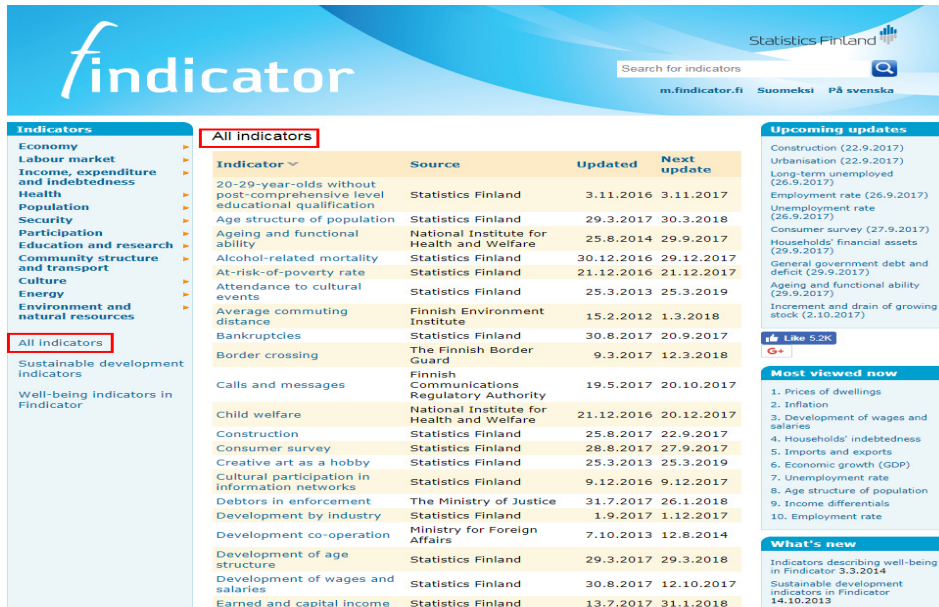
제3장

핀란드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우측 하단 배너를 통해 지표대표사이트(Findicator)로 이동

- 영역별로 개별지표를, 지표체계로서는 SDI와 웰빙지표를 소개



- 한 영역(Economy)을 선택하면 관련 지표들이 펼쳐지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지표의 시계열자료, 출처, 정의 등을 볼 수 있음



- 전체지표(All Indicators)를 선택하면 주제와 상관없이 모든 지표를 보여줌

<p>Indica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onomy Labour market Income, expenditure and indebtedness Health Population Security Participation Education and research Community structure and transport Culture Energy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All indicators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Well-being indicators in Findicator 	<p>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p> <p>Sustainable development is a globally, regionally and locally ongoing process of continuous and targeted change in society. It aims at safeguarding th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with opportunities for a good life. This requires that the environment, people and the economy are equally taken into account in decision-making and activities.</p> <p>Read more</p> <p>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p> <p>Equal opportunities for well-be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fe expectancy • Development co-operation • Income differentials • Those aged 17 - 24 not in education or training (Welfare compass) • Subjective well-being (Eurofund) <p>Society of participating citize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ting turnout • Suora osallistuminen (Vaalitutkimus) (in Finnish) • Kansalaisyhteiskunta (Vaalitutkimus) (in Finnish) • Luottamus instituutioihin (Vaalitutkimus) (in Finnish) • Corrup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p>Sustainable wor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ployment rate • Economic dependency ratio • Valtion tutkimus- ja kehittämisrahoitus yhteiskuntapolittisen tavoitteen mukaan (Tilastokeskus) (in Finnish) • Work absences due to sickness (Kela) • Työtapatuimat (Tapaturmavakuutuslaitosten liitto) (in Finnish) • Valikuttamismahdollisuudet työtehtäviin, työtahtiin ja työnjakoon (Työ- ja elinkeinoministerio) (in Finnish) <p>Sustainable communities and local commun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erage commuting distance • Palvelujen saatavuus (Ymparisto.fi) (in Finnish) • Broadband services • Liikenteen kulkumuotojakauma (Liikennevirasto) (in Finnish) •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in households considering that they suffer from noise (Eurostat) 	<p>Further information</p> <p>Domest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L Welfare Compass Biodiversity indicators <p>Internation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Beyond GDP Eurostat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UN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indicators UN Human Development Index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OECD Green growth indicators OECD Better Life Index Nordic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ustainable Society Index <p>Like 5.2K</p>
---	---	---

제3장

- SDI는 8개 영역, 39개 지표로 구성 (39개 지표 중 24개는 전체지표 또는 핀란드 통계청 내의 자료로 연계되고 10개는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지만 5개는 연계가 되지 않음)

<p>Indica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onomy Labour market Income, expenditure and indebtedness Health Population Security Participation Education and research Community structure and transport Culture Energy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All indicators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Well-being indicators in Findicator 	<p>Well-being indicators</p> <p>Read more</p> <p>Well-being indicators of Findicator in the Eurostat Quality of Life framework</p> <p>Material living condi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useholds' adjusted disposable real income • Income differentials • Low-income households by self-perceived financial well-being <p>Productive or main activ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mployment rate • Long-term unemployed • Part-time and fixed-term employment <p>Heal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fe expectancy • Obesity • Physical exercise • Smoking <p>Edu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al structure of population • 20-29-year-olds without post-comprehensive level educational qualification <p>Leisure and social interac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tendance to cultural events • Creative art as a hobby <p>Economic and physical safe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useholds' indebtedness • Homicide • Offences against the Penal Code • Fear of crime <p>Governance and basic righ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ting turnout • Development of wages and salaries <p>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ue-green algal situation in inland waters • Blue-green algal situation in the Finnish marine areas • Generation of wast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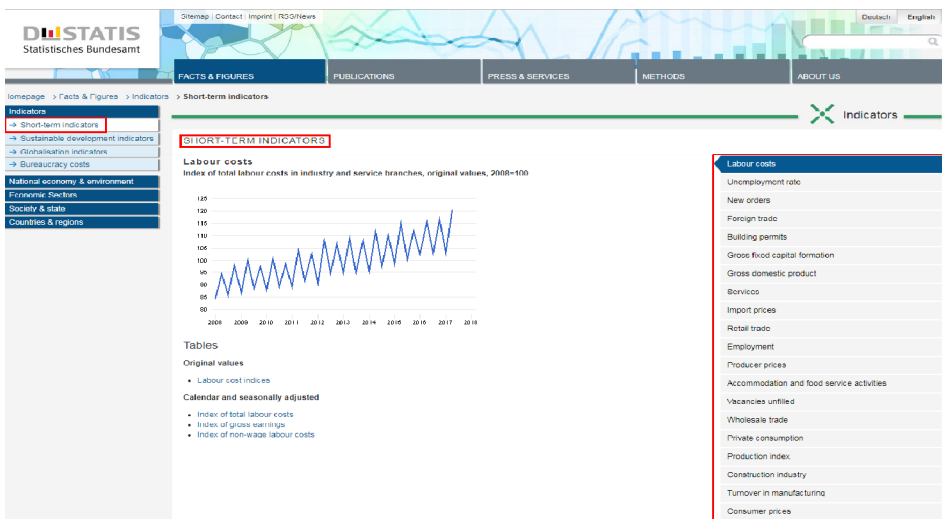
- 웰빙지표는 8개 영역 23개 지표로 구성

〈부표 3-2〉 독일 지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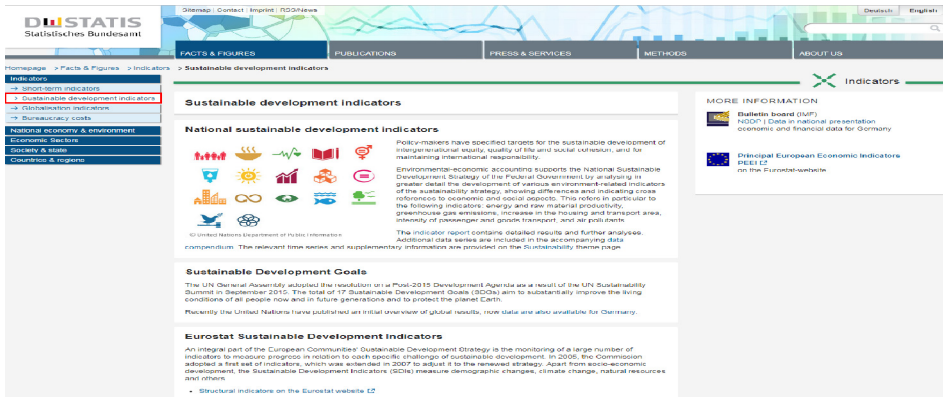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s://www.destatis.de/EN/Homepage.html
주요 지표체계	Shor term,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ization, Burocracy costs
연락처	+49 611 75 2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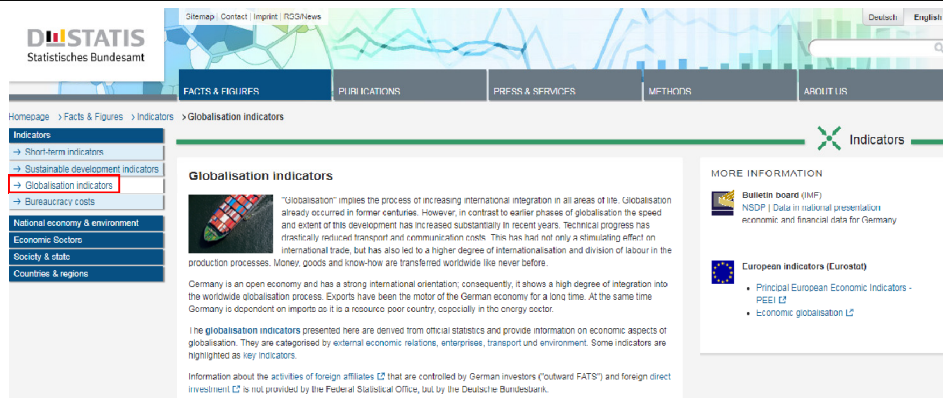
- 영역별 통계와 함께 별도의 지표 카테고리에서 지표체계를 제시 : 단기지표(Short term indicators),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세계화지표(Globalization indicators), 관료제비용(Burocracy costs)



- 단기지표는 경제발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20개의 지표로 구성



- SDI는 UN 차원의 SDGs와 유럽통계청 차원의 SD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지표내용은 보고서를 통해 제공



- 세계화지표는 공식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 경제 관계(external economic relations), 기업, 운송 및 환경 분야로 구분



- 관료제비용은 정부 규제 및 입법 프로젝트 관련한 지표로 관료제 축소와 과도한 새로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측정도구

〈부표 3-3〉 네덜란드 지표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www.cbs.nl/en-gb
주요 지표체계	Green Growth, Areas of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연락처	-



Labour and income

Economy

Society

Regional

Figures

Nature and environment

News



Greenhouse gas emissions slightly up in 2016

04/09/2017 15:14



Lower CO2 emissions in Q2 2017

16/08/2017 15:00



Environmental-economic impact of tourism sector studied

06/06/2017 15:00

Data visuali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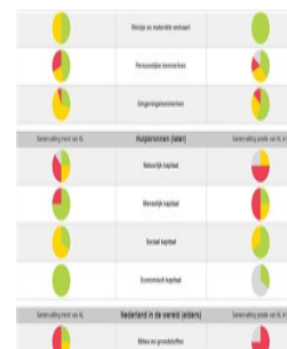
Green Growth

30/05/2017 02:00



Areas of Sustainability

17/05/2017 10:15



Sustainable development

17/05/2017 10:15

-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sed) 섹션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 지속가능성(Areas of Sustainability),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제시



Areas of Sustainability

17/05/2017 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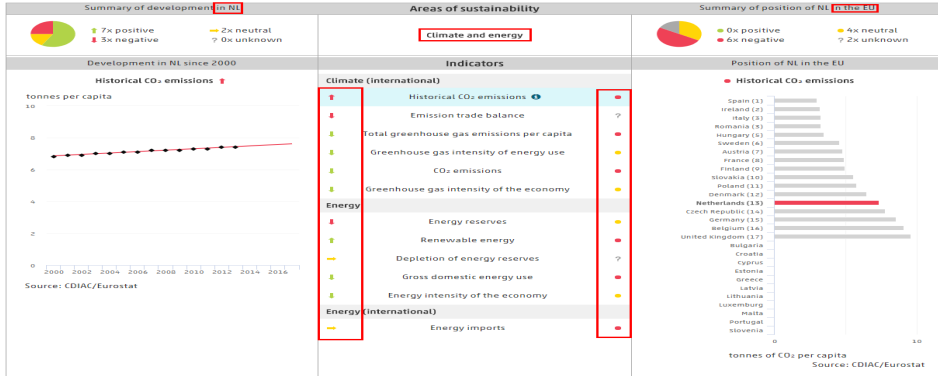
The 'Areas of sustainability' infographic shows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for 14 policy areas distinguished in the Sustainability Monitor 2017 (click on the policy areas in the middle column to see the indicators).

On the left, developments in the Netherlands since 2000 are shown for each individual indicator (long-term trend). Coloured arrows indicate whether the trend is increasing or decreasing, where the colour indicates its effect from a sustainability point of view (green positive, yellow neutral, red negative). The position of the Netherlands compared with other EU countries is presented on the right-hand side (green: the Netherlands is in the top third of countries compared; red: bottom third of the ranking; yellow: middle third. Grey means no international comparison is available.).

Definitions of the indicators used for the trend in the Netherlands may differ from those used for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All the data are included in excel-tables below the visualisation.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indicators used, see also the Annex in the [Sustainability monitor of the Netherlands 2014](#).

Summary of development in NL	Areas of sustainability	Summary of position of NL in the EU
	Well-being	
	Climate and energy	
	Quality of local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landscape	
	Health	
	Housing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obility	
	Safety	
	Social participation and trust	
	Education and knowledge	
	Material welfare and economy	
	Financial sustainability	
	Trade, aid and natural resources	
	Inequality	

- 지속가능성 영역은 14개 분야 및 126개 지표로 구성



- 관련 지표에 대한 동향을 뉴질랜드 내에서는 왼편의 화살표 색과 방향으로 표시하였고, EU 국가 비교에서는 오른편에 원의 색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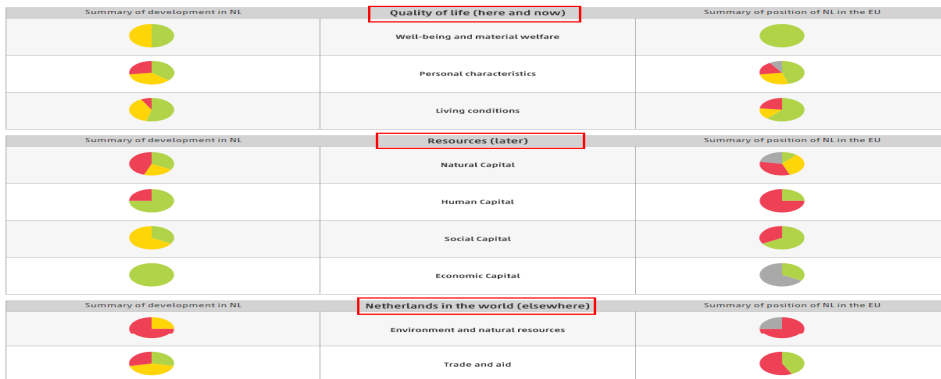
Sustainable development

17/05/2017 10:15

The Sustainability Monitor 2017 (Dutch only) measures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etherlands in terms of three aspects: Quality of life ('here and now'), Resources ('later') and the Netherlands in the world ('elsewhere'). The visualisation below shows themes and indicators within these topics (click on the themes in the middle column to see the indicators).

On the left, developments in the Netherlands since 2000 are shown for each individual indicator (long-term trend). Coloured arrows indicate whether the trend is increasing or decreasing, where the colour indicates its effect from a sustainability point of view (green positive, yellow neutral, red negative). The position of the Netherlands compared with other EU countries is presented on the right-hand side (green: the Netherlands is in the top third of countries compared; red: bottom third of the ranking; yellow: middle third. Grey means no international comparison is available).

Definitions of the indicators used for the trend in the Netherlands may differ from those used for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All the data are included in excel-tables below the visualisation.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indicators used, see also the Annex in the [Sustainability monitor of the Netherland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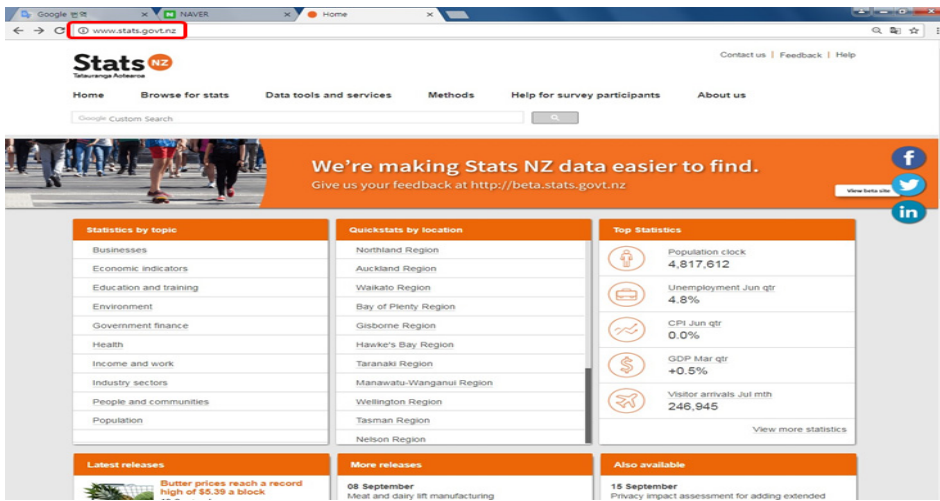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은 3개 영역 56개 지표로 구성
- 세부적으로는 측정 대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표에 대한 통계값과 장기 추세(long term trend)를 포함한 그래프, EU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순위값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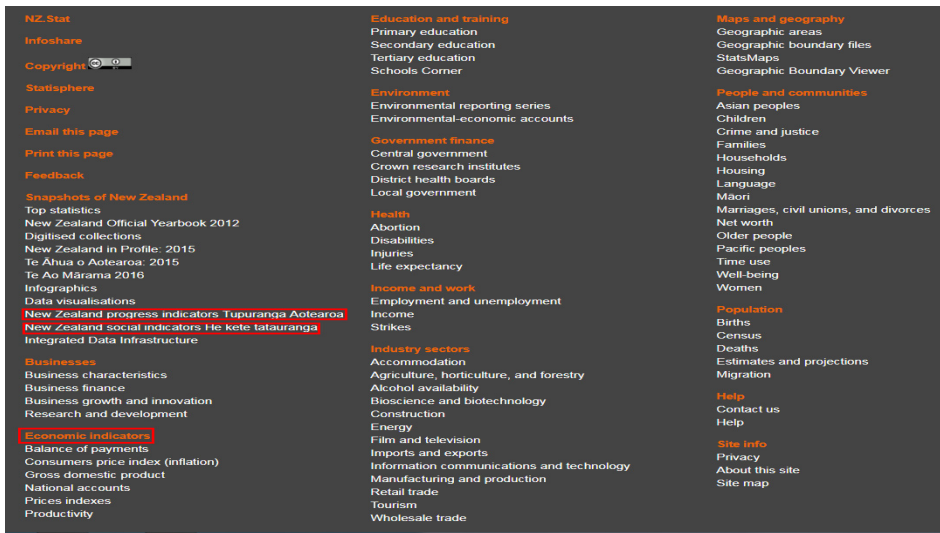
〈부표 3-4〉 뉴질랜드 지표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www.stats.govt.nz
주요 지표체계	New Zealand progress indicators, New Zealand social indicators, Economic indicators
연락처	tel. +64 4 931 4600 info@stats.govt.n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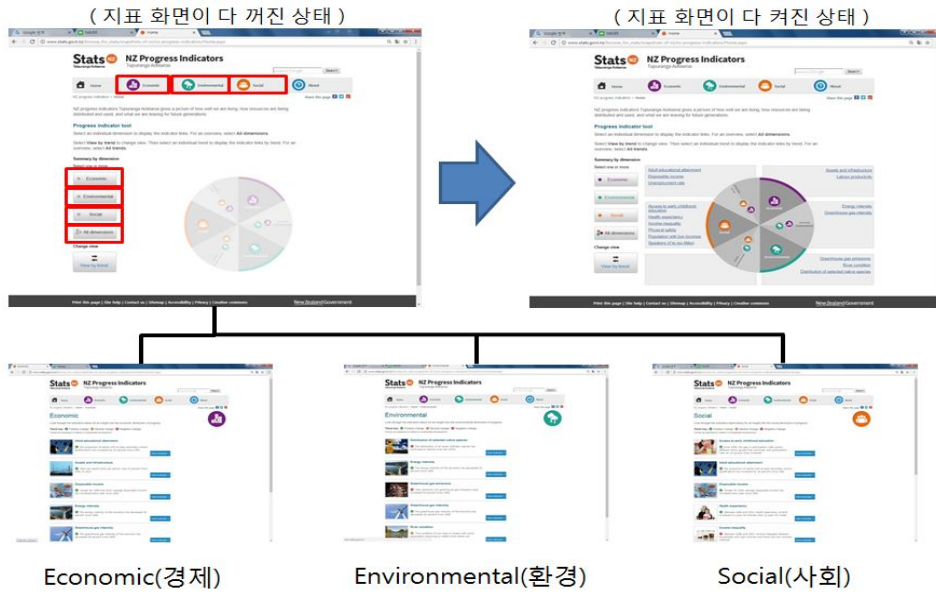
제3장



- 뉴질랜드 통계청 홈페이지 주소 : www.stats.govt.nz



- NZ progress indicators, NZ social indicators, Economic indicators 세 개의 지표체계 제시



- NZ progress indicators는 경제, 사회, 환경 영역으로 구분되어지고 서로 중첩되는 영역을 원그래프를 활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을 했으며, 각 지표 동향을 긍정(Positive), 중간(Neutral), 부정(Negative)으로 표시

Stats NZ NZ Social Indicators
Tauranga Aotearoa He kete tauranga

powered by **GOOGLE** Search

Home About Health Perceived discrimination
Education Labour market Standard of living Trust and participation in government
Culture and identity Leisure and arts Individual safety and security Social connections

NZ social indicators - Home Share this page

NZ social indicators
He kete tauranga

Explore the most up-to-date data on a range of key New Zealand soci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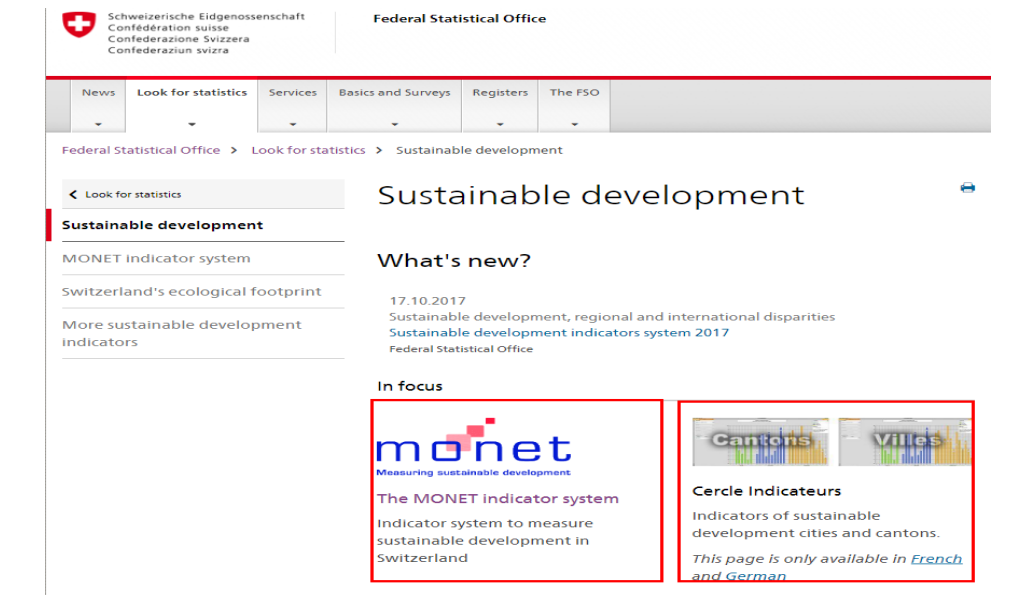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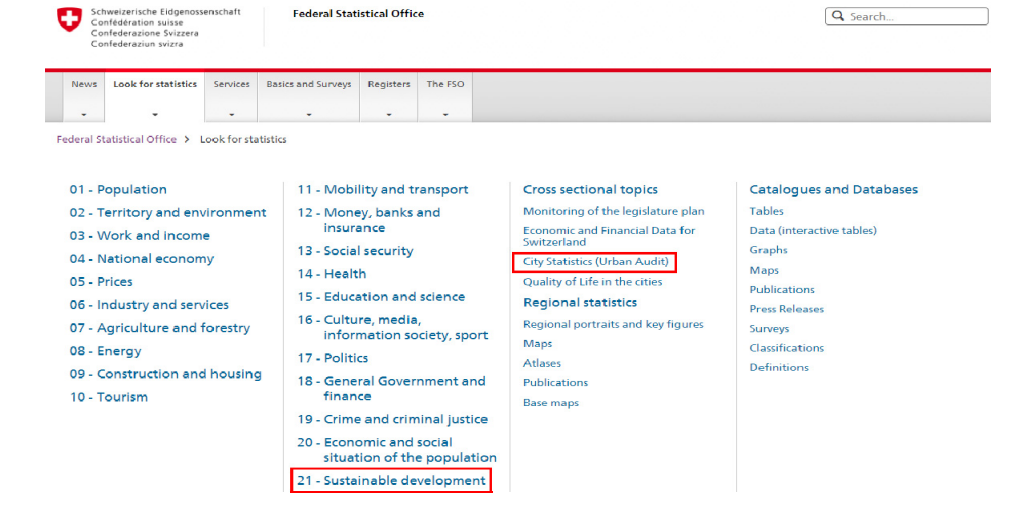
Find graphs and data tables by domain:

- Health
- Perceived discrimination
- Education
- Labour market
- Standard of living
- Trust and participation in government
- Culture and identity
- Leisure and arts
- Individual safety and security
- Social connections

- 뉴질랜드 사회지표는 건강, 차별, 교육, 노동시장, 정부에 대한 신뢰와 참여, 문화, 여가문화, 개인안전, 사회관계 9개 영역으로 구성

〈부표 3-5〉 스위스 지표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s://www.destatis.de/EN/Homepage.html
주요 지표체계	SD(Monet, Cercle Indicateurs), City statistics((Quality of life)
연락처	-



- 메인 > 통계 검색 > 지속가능발전 > Monet(SDGs 모니터링)
- 또한 지역 수준(Sub-national level)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인 ‘Cercle Indicateurs’를 개발, 운영 중임

Office fédéral de la statistique > Trouver des statistiques > Développement durable > Système d'indicateurs MONET > Tous les indicateurs

Tous les indicateurs selon les thèmes

Liste complète des indicateurs, organisée selon les 12 thèmes (set) du système MONET. La liste peut être triée alphabétiquement selon les thèmes ou selon les indicateurs, ainsi que selon les symboles de qualification de l'évolution des indicateurs (cliquer sur l'entête de colonne).

Des explications quant aux symboles sont disponibles sur la page [Aspects méthodologiques](#).

Set	Indicateur				
Conditions de vie	Revenu disponible équivalent	↗	↗	↗	↗
Conditions de vie	Taux de pauvreté	↘	↘	↘	↘
Conditions de vie	Coûts du logement	↗	↗	↗	↗
Conditions de vie	Perception de l'environnement et du logement	↗	↗	↗	↗
Conditions de vie	Satisfaction dans la vie	↗	↗	↗	↗
Conditions de vie	Taux de suicide	↘	↘	↘	↘
Conditions de vie	Infractions de violence	↘	↘	↘	↘

- MONET에서는 지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표의 개선, 악화를 수치 비교를 통해 화살표 아이콘으로 표현(프랑스어, 독일어 서비스)

Federal Statistical Office > Look for statistics > Cross sectional topics > City Statistics (Urban Audit) > Quality of Life Indicators

Quality of Life Indicators

The Urban Audit in Switzerland has applied the OECD framework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ir ten cities.

With a concept of the quality of life an attempt is made to measure the well-being of the population in its various dimensions. Well-being is determined by both material living conditions a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dimensions of material living conditions are *Income & Jobs* and *Housing Conditions*. The immaterial dimensions of the quality of life include *Health*, *Education*, *Environmental Quality*, *Personal Security*, *Civic Engagement* and *Work-Life Balance*.

Quality of life dimensions

- Income & Jobs
- Housing Conditions
- Health
- Education
- Environmental Quality
- Personal Security
- Civic Engagement
- Work-Life Balance
- Infrastructure & Services
- Mobility
- Culture & Leisure

Urban Context: Economy, Dem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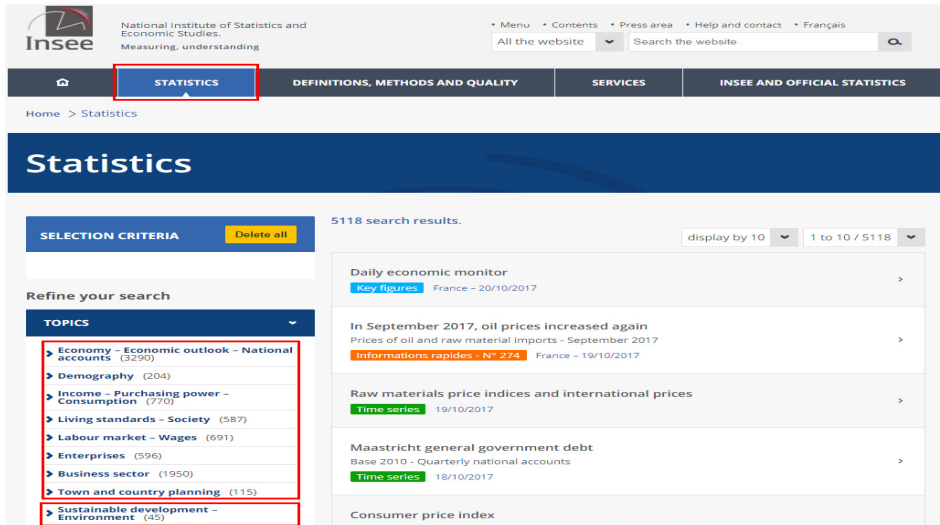
Source: OECD (2014), *How'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 OECD Publishing, Paris; Design adapted by the FSO

© FSO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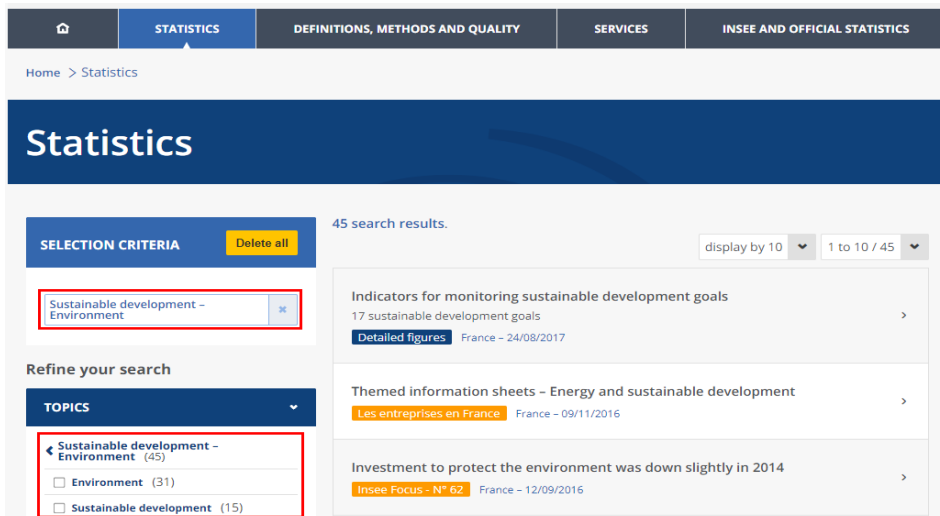
- 'City statistics'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초점을 둔 지표 시스템

〈부표 3-6〉 프랑스 지표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s://www.insee.fr/en/accueil
주요 지표체계	Sustainable Development-Environment
연락처	+33 (0)9 72 72 4000.



- 통계영역이 경제·경제전망·국민계정, 인구, 소득·구매력, 생활수준·사회, 노동시장·임금, 기업, 도시 및 국가계획, 지속가능발전·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서 통계 및 해당되는 지표를 작성하여 서비스
- SDGs는 지속가능발전·환경영역에서 작성



- SDGs는 지속가능발전·환경영역에서 작성하고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

Home | **STATISTICS** | DEFINITIONS, METHODS AND QUALITY | SERVICES | INSEE AND OFFICIAL STATISTICS

◀ Back | Home > Statistics > Indicators for monitor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for monitor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ETAILED FIGURES
Published on : 23/08/2017
[> Print](#)

The UN General Assembly has adopted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subdivided into 169 targets for 2015-2030. They are to be monitored according to an initial list of 244 indicators.

These goals and targets make up a common roadmap for all States for the transition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Consultation has begun, under the aegis of the National Council for Statistical Information (CNIS), to put forward appropriate indicators for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the SDGs at national level.

To achieve this, statistical indicators already available at national level for the 244 international indicators, in an exact or approximate version, have been identified and collected within the Official Statistical Service (SSP), the Banque de France and the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INSEE, which coordinates the statistical work on the indicators for France, produced a **leaflet** on the SDGs monitoring.

PRESENTATION | DOCUMENTATION

Table of contents

PRESENTATION | DOCUMENTATION

Goal 1: End poverty

Indicators for monitor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ETAILED FIGURES
Published on : 03/07/2017

Download the list of indicators for the goal 1

(xls, 22 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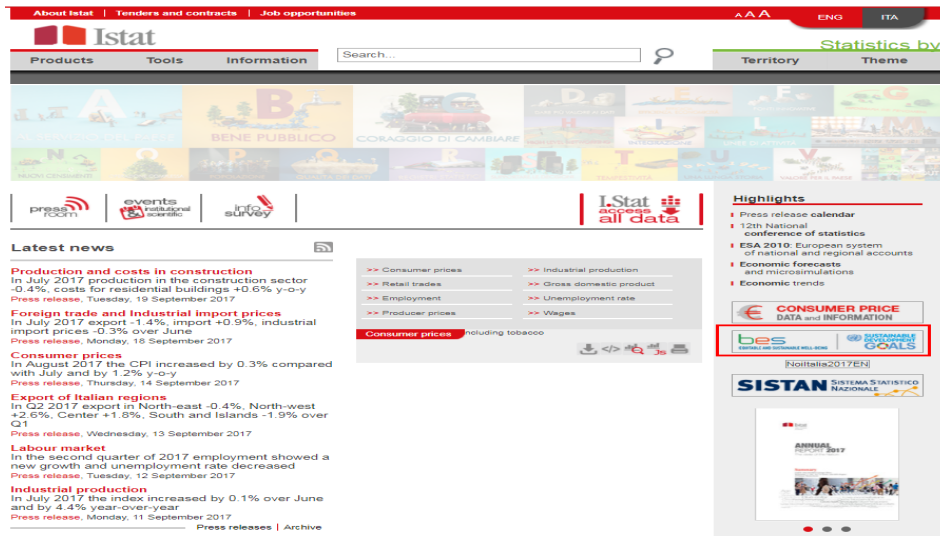
Indicators:

- Poverty rate (threshold at 60% of median income)
- Poverty rate in living conditions
- Number of very serious natural events
- Amount of compensation paid by insurance companies for natural disasters
- Number of municipalities covered by an approved flood risk prevention plan, including plans that have been revised and approved
- Expenditure by general government (S13) broken down by function according to the COFOG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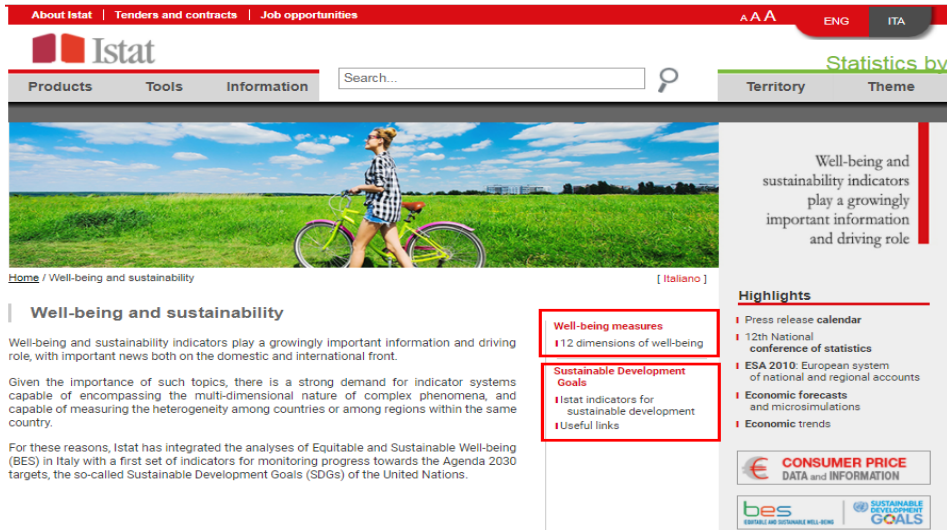
- 각 지표에 대한 글로벌지표와 국내 통계값을 엑셀파일로 제시하고 있다.

〈부표 3-7〉 이탈리아 지표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www.istat.it/en/
주요 지표체계	BES(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연락처	tel. +39 06 46731, dcit@istat.it



- BES(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배너 클릭해서 접속



- 웰빙측정(Well-being measures), SDGs 두 개의 지표체계로 구성

The screenshot shows the Istat website's page for 'The 12 dimensions of well-being'. The page features a header with navigation links, a search bar, and a main content area with a list of 12 dimensions. A red box highlights the 'Well-being measures' section, which includes '12 dimensions of well-be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Useful links'. The right sidebar contains 'Highlights' and various statistical tools like 'CONSUMER PRICE DATA and INFORMATION' and 'SISTAN SISTEMA STATISTICO NAZIONALE'.

- 웰빙측정(Well-being measures)은 12개 분야로 나누어짐

The screenshot shows the Istat website's page for 'Health'. The page features a header with navigation links, a search bar, and a main content area with detailed information about health. A red box highlights the 'Health' section, which includes 'Basic concepts', 'Dimensions considered to represent the domain', and 'List of indicators'. The right sidebar contains 'Well-being measur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12개 웰빙 분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분야 밑으로 여러 하위지표들에 대한 리스트 및 해설이 나와있지만 하위지표에 대응하는 지표값은 제공하고 있지 않음

The screenshot shows the Istat website's page for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header includes navigation links like 'About Istat', 'Tenders and contracts', and 'Job opportunitie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ncludes a sub-header 'Furthering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while ensuring that i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The text explain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entions the 2030 Agenda. A sidebar on the right contains 'Highlights' such as 'Press release calendar' and '12th National conference of statistics', and 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ection with a star icon and links to indicators and useful lin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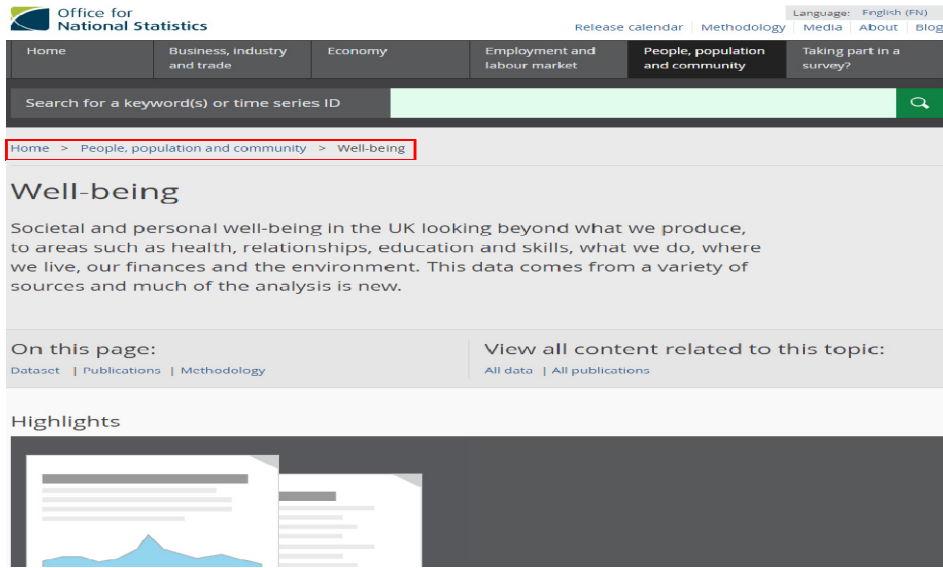
제3장

This screenshot provides a detailed list of 1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ith their corresponding Istat indicators. Each goal is represented by a numbered icon and includes the goal number, a link to the indicator (xls or pdf), and a brief description of the goal. The goals listed are: Goal 1 (End poverty), Goal 2 (End hunger), Goal 3 (Ensure healthy lives), Goal 4 (Ensure inclusive education),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Goal 6 (Ensure availability of water and sanitation), Goal 7 (Ensure access to affordable energy), Goal 8 (Promote sustained economic growth), Goal 9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Goal 10 (Reduce inequality), and Goal 11 (Make citie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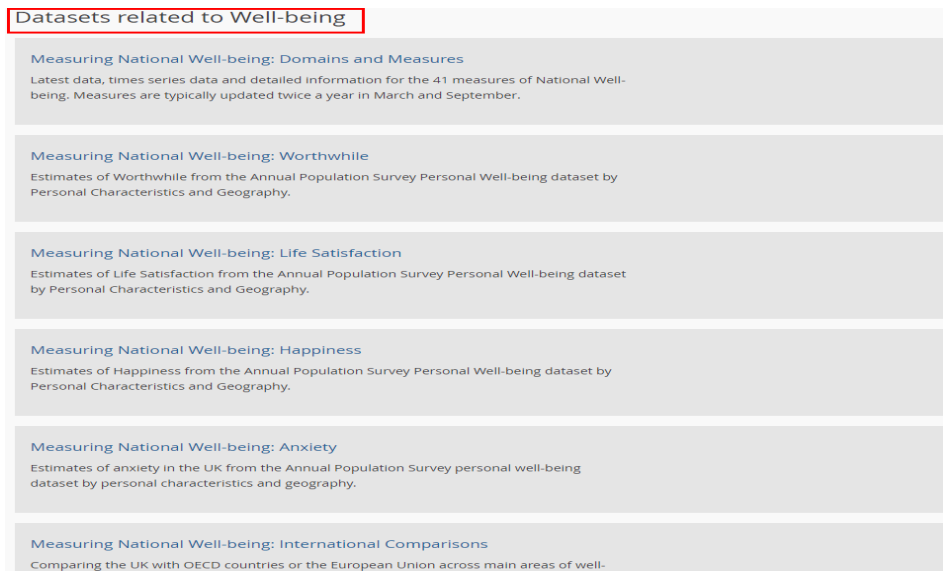
- 17개 각 목표별로 이탈리아 가용가능한 지표들에 관하여 지표값, 출처, 조사명, BES와 중복 여부, 지표정의 등을 DB형식으로 구성함

〈부표 3-8〉 영국 지표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s://www.ons.gov.uk/
주요 지표체계	Well-being, (SDIs ⇔ SDGs)
연락처	SustainableDevelopment@ons.gov.uk



- Home > People, population and community > Well-being



- 웰빙과 관련된 데이터셋 : 국가웰빙 일 년에 두 번 측정(10개 영역, 41개 측정지표)

Publications related to Well-being

Related bulletins

Personal well-being in the UK: April 2016 to March 2017
Estimates of life satisfaction, whether you feel the things you do in life are worthwhile, happiness and anxiety at the UK, country, regional and local authority level.

Economic Well-being: April to June 2017
Presents indicators that adjust or supplement more traditional measures such as GDP to give a more rounded and comprehensive basis for assessing changes in economic well-being.

UK environmental accounts: 2017
Satellite accounts to the main UK National Accounts measuring the contribution of the environment to the economy, the impact of economic activity on the environment, and society's response to environmental issues.

- 웰빙과 관련된 간행물 : 영국의 개인 웰빙, 경제웰빙, 영국환경계정

Home > People, population and community > Well-being >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Articl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July 201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s) provide an overview of progress towards a sustainable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There are 12 headline and 23 supplementary indicators, supported by 25 and 41 measures respectively. Where there are sufficient data to be compared, measures have been assessed over the long-term and short-term to show if there has been clear improvement, deterioration or if there has been little or no overall change.

This is the latest release

[View previous releases](#)

Notice

- 홈페이지에서 SDIs는 Well-being의 하위 카테고리에 위치
- 2014년 통계청(ONS)에서는 환경, 식량 및 농무부(Defra)의 요청에 따라 매년 7월 SDI(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를 업데이트하고 게시하는 역할 수행해 왔음
- 12 개의 헤드라인과 23개의 보충 지표(영역)가 있으며, 각각의 지표(영역)를 측정할 수 있는 25개와 41개의 통계들로 구성

1. Cess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ince 2014,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has taken responsibility for updating and publish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s) annually in July, at the request of 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They provide an overview of progress towards a sustainable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The SDIs contain 12 headline and 23 supplementary indicators, supported by 25 and 41 measures respectively. The [latest release of the SDIs](#), published in July 2015, can be found on our website.

User engagement has revealed limited use of these statistics. This is most notable within Defra where policy interests have moved on towards the us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framework for measuring sustainability. There has also been considerable confusion between the SDIs and both the SDG programme and existing measures of National Well-being. In consultation with our users we have therefore taken the decision to stop publishing the SDIs.

This decision will not result in the loss of any statistics, which will each continue to be available from their original source. To support users we have prepared a table which signposts towards the source of each SDI, and is available below.

Please be aware that these links were accurate as of the 22 July 2016.

If users are unable to access any of the data or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us at qualityoflife@ons.gsi.gov.uk.

Contact details for this article

Matthew Steel
qualityoflife@ons.gov.uk
 Telephone: +44 (0)1633 455680

- SDIs 발행 중단 결정

[Home](#) > [About us](#) > [What we do](#) > Programmes and projects

Programmes and projects

We run major programmes designed to deliver new statistics, improve our IT infrastructure, improve access to our data and develop our staff. These form part of our priorities for the next 5 years.

<h3>Census Transformation Programme</h3> <p>Our programme to develop the 2021 Census</p>	<h3>Data Science Campus</h3> <p>Building world-leading expertise in the innovative application of data science</p>	<h3>The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 collaboration</h3> <p>Our partnership with the Network to provide researchers with administrative data</p>
<h3>The ONS Big Data Project</h3> <p>How large datasets will affect our processes and outputs</p>	<h3>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3> <p>Measuring and reporting UK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p>	<h3>Data Collection Transformation Programme (DCTP)</h3> <p>Seeks to rebalance ONS' data collection activity significantly toward wider, more integrated use of administrative and other non-survey data sources.</p>

〈부표 3-9〉 아일랜드 지표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www.cso.ie
주요 지표체계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Environmental Indicators
연락처	tel. Reamonn McKeever + 353 1 4984212, environment@cso.ie

- 홈페이지 Statistics > Environment

YOU ARE HERE [HOME](#) / [STATISTICS](#) / [ENVIRONMENT](#)

Environment

Releases and Publications

Current Releases

- > Domestic Building Energy Ratings Quarter 3 2017
- > Non-Domestic Building Energy Ratings Q3 2017
- > Income and Expenditure on Water Supply and Waste Water Treatment 2013
- > Networked Gas Consumption 2016
- > Environment Taxes 2016
- > Environmental Subsidies and Similar Transfers 2015
- > Domestic Metered Public Water Consumption 2015
- > QNHS Environment Module Q2 2014
- > Environmental Accounts, Air Emissions 2014
- > Material Flow Accounts 2014

Current Publications

- >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reland 2017
- > Environmental Indicators Ireland 2016

-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reland 2017, Environmental Indicators Ireland 2016 두 개의 지표체계로 구성

Home Statistics Databases Methods About Us

YOU ARE HERE: [HOME](#) / [STATISTICS](#) /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RELAND 2017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reland 2017

Introduction

This is the third edi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reland, which is published on a biennial basis. The report Our Sustainable Future, A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Ireland (published by the then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requested the CSO to develop a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set in consultation with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The present indicator set complements two existing CSO indicator reports namely Measuring Ireland's Progress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Ireland.

Sustainable development has the objective of achieving continuous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by linking economic development,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social justice.

The indicators in this publication are presented under four domains: Global, Economy, Social, and Environment. The Global Indicators domain contains seven indicators and gives a worldwide overview; the other three domains only contain data for Ireland and the EU. The Global indicators show that the EU is in an advantaged position in economic, health and education terms relative to most other regions.

The Economy, Social and Environment domains contain indicators designed to show trends in Ireland since 2000 and to benchmark Ireland against other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The impacts of the 'Celtic tiger' and the subsequent recession are clearly visible in the data.

The CSO wishes to thank: Birdwatch Ireland;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Department of the Communications, Climate Action and Environment; Department of Financ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of Housing, Planning,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 Department of Transport, Tourism and Sport; DKM Economic Consultant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venue Commissioners and Sustainable Energy Authority of Ireland for providing us with data and technical advice on the most appropriate indicators for Ireland.

Chapters

- > Introduction
- > Main Findings
- > Global
- > Economy
- > Social
- > Environment
- > Background Notes
- > Contact Details

- 지표는 글로벌, 경제, 사회, 환경 4개 영역으로 구분되어짐. 글로벌은 7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일랜드를 포함한 EU와 다른 대륙들과 비교할 수 있음

Home Statistics Databases Methods About Us

YOU ARE HERE: [HOME](#) / [STATISTICS](#) / ENVIRONMENTAL INDICATORS IRELAND 2016 / INTRODUCTION

Environmental Indicators Ireland 2016

Introduction

Main Findings

Air

- Air quality in Ireland has improved since 1990 for some indicators such as sulphur dioxide and ammonia. In 2014, emissions for sulphur dioxide and ammonia were below the National Emissions Ceiling under the NEC Directive. However, emissions of nitrogen oxides and non-methane volatile organic compounds were respectively 15% and 58% above their prescribed ceiling in 2014.
- However, when examined against the emissions of other EU member states in 2014, based on their progress towards the 2010 NEC Directive Ireland ranked 77th for sulphur oxides, 76th for nitrogen oxides, 16th for ammonia, and 78th for NMVOC emissions in 2014.

Greenhouse Gases and Climate Change

- Greenhouse gas emissions in Ireland have fallen by 17% from 70.4 million tonnes of CO₂ equivalent in 2005 to 58.3 million tonnes in 2014.
- Ireland experienced the eight biggest decline in emissions among EU Member States over the 2005-2013 period. Agriculture accounted for a third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Ireland in 2014. Other important sectors in 2014 included Transport (19%), Energy (19%), and Industry and Commercial (16%).
- Ireland's greenhouse gas emissions on a per capita basis were the third highest in the EU in 2013.

Water

- Ireland ranked 19th among EU member states in terms of compliance with bathing water quality guide values in 2014.
- In 2014, 99.9% of public drinking water supplies in Ireland complied with E. coli standards and 93% with Trihalomethane standards.

Chapters

- > Introduction
- > Air
- > Greenhouse Gases and Climate Change
- > Water
- > Land Use
- > Energy
- > Transport
- > Waste
- > Biodiversity and Heritage
- > Environmental Economy

- 환경지표는 대기, 온실가스과 기후변화, 물, 토지사용, 에너지, 운송, 쓰레기, 생물다양성과 유산, 환경경제 9개 영역 87개 지표로 구성